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제4100호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산업]
2019 업종전망
전자가 희망이다
05

Economy

코스피 2082.57 (+29.60)
코스닥 676.48 (+15.47)
금리(국고채 3년) 1.80 (+0.01)
환율(원·달러) 1128.50 (-1.60) 〈12일〉

현대차그룹, 정의선 체제로… 50대 CEO 전진배치

대규모 사장단 인사

현대건설 부회장에 정진행
현대모비스 사장에 박정국

현대자동차그룹이 12일 현대·기아차 및 주요 계열사에 대한 대표이사와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인사에서 정몽구 회장을 보좌해 그룹의 전략기획 부문을 총괄했던 김용환 부회장이 현대제철 부회장으로 옮기고, 정진행 전략기획담당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해 현대건설 부회장으로 보임됐다.

또 박정국 현대케피코 사장이 현대모비스 사장에,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은 현대로템 부회장에, 이건용 현대글로비스 경영지원본부장(전무)을 현대로템 부사장으로 각각 발령했다.

현대·기아차 기획조정2실장 여수동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해 현대다이모스-현대파워텍 합병법인 사장으로 발령났다.

신임 현대오트론 대표이사에는 문대흥 현대파워텍 사장이, 신임 현대케피코 대표이사는 현대·기아차 품질본부장 방창섭 부사장이, 산학협력 및 연구개발(R&D) 육성 계열사인 현대엔지비 대표이사에는 현대·기아차 환경기술센터장 이기상 전무가 각각 내정됐다.

현대캐피탈 코퍼레이트 센터부문장 황유노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다.

현대·기아차 차량성능담당 알버트 비어만 사장은 신임 연구개발본부장에, 현대오트론 조성환 부사장은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 부본부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전략기술본부장 지영조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다.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공급 업체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전략기술본부의 위상을 강화해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AI) 등 핵심과제 수행과 전략투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대·기아차 생산개발본부장 서보신 부사장을 생산품질담당 사장으로, 홍보실장 공영운 부사장은 전략기획담당 사장으로 각각 승진해 보임됐다.

한편 현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담당 양웅철 부회장, 연구개발본부장 권문식 부회장, 생산품질담당 여승동 사장, 현대모비스 임영득 사장, 현대다이모스 조원장 사장, 현대제철 강학서 사장, 현대로템 김승탁 사장 등은 고문에 위촉됐으며 현대엔지비 오창익 전무는 자문에 위촉됐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본사

더 사랑하게 되는 계절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보된 12일 오전 두꺼운 복장을 한 외국인들이 서울 남산에서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자 수 늘었지만 실업률은 역대 최대

통계청 '11월 고용동향'

취업자 전년比 16.5만명 ↑
실업자는 91만명 달해

올 11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10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업률은 1999년 이후 같은달 기준 최고를 기록해 아직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긴 이르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년 11월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18만4000명으로 작년 11월보다 16만5000명 증가했다.

이는 올해 1월에 이어 최근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취업자가 늘어난 수치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6월 10만6000명을 기록한 이후 7월 5000명, 8월 3000명, 9월 4만5000명, 10월 6만4000명으로 4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지난달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4000명, 8.2%), 정보통신업(8만7000명, 11.2%), 농림어업(8만4000명, 6.2%) 등에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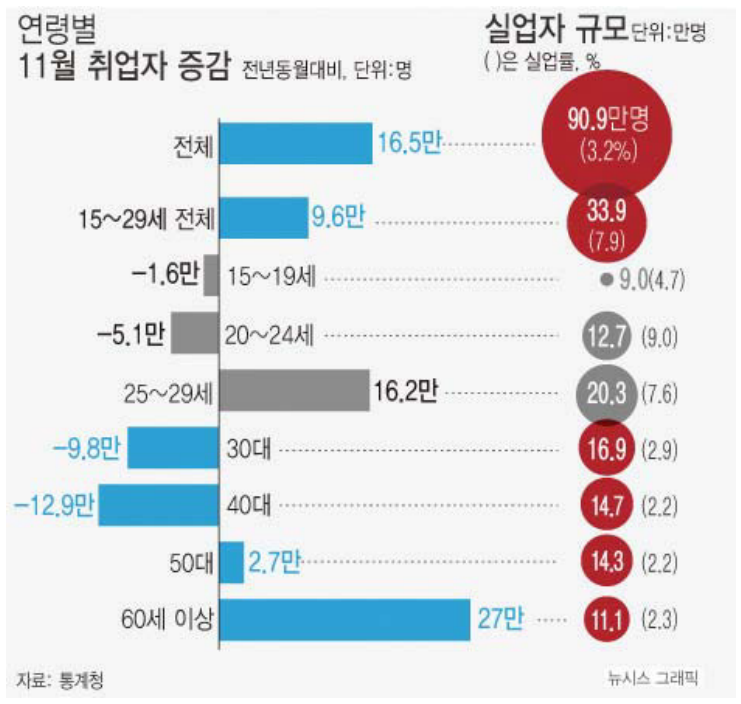
반면, 제조업에서 9만1000명(2.0%) 줄었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과 도매 및 소매업은 각각 9만1000명(6.6%), 6만9000명(1.8%)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8개월 연속 줄었고,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4만3000명 늘었고 임시근로자는 11만6000명 줄었다. 일용근로자는 2만1000명 증가했다.

한편, 지난달 실업자는 9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3.2%로 작년 11월보다 0.1%p 상승했다.

실업률은 20대(-1.3%p)가 소폭 하락했고 40대(0.4%p), 50대(0.6%p), 60세 이상(0.4%p)은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9%로 1년 전보다 1.3%p 하락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변화보다 안정'… 삼성전자, 조직개편 최소화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수장 교체
5G 상용화 맞춰 성과 확대

전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왼쪽)은 최근 SK텔레콤과 협약식을 맺는 자리에도 참석한 바 있다. /SK텔레콤

삼성전자가 2019년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사실상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5G 전문가를 중용하는 조치만 취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2019년 조직개편 및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조직개편은 대부분을 종전대로 유지하는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3개 부문에 3개 대표 체제를 중심으로, 각 사업부 수장도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인력 배치만 일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와 같이 IM부문 네트워크사업부는 전경훈 부사장이 맡기로 했다. 김영기 사장은 고문으로 자리를 물러났다.

이번 조치는 5G 장비 시장에 더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 부사장은 포스텍 교수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5G 관련 기술 연구를 주도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무선데이터 전송기술을 개발하고, 5G 표준화 작업에도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5G 장비 시장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기술 개발에 22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며, 최근에는 SK텔레콤과 협력해 단독규격 핵심 장비를 개발하는 등 세계최초 5G 상용화에도 힘을 실은 바 있다.

삼성전자는2020년까지 시장 점유율을 20%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통신장비 시장에서 11% 점유율로 4위에 머물러있다. 아직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성능으로는 에릭슨 등 유수 업체들을 거의 따라잡았다는 평가다.

김영기 사장은 오랜 기간 자리를 맡아왔던 만큼, 발전을 위해 스스로 자리를 물려주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2010년 처음 네트워크사업부장을 맡아 8년여간 사업을 이끌어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전경훈 부사장을 네트워크사업부장으로 임명한 외에는 변화가 없어서 따로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며 "일부 세부적인 인력 이동이 있었지만 조직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김재웅기자 juk@

생계형 적합업종 오늘 시행… 소상공인 생계 지켜줄까

'생계형' 광범위… 신청난립 우려
중기단체, 소상공인 90%로 올려야
민간전문가 15명 심의위원 구성
영세성·경쟁력 등 고려 지정 결정

1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대기업 등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지켜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호기간을 5년으로 늘렸고, 위반시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 벌칙도 부과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비해 강제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생계형'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해질 경우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지정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자칫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도 이날부터 받는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심의항목 및 주요 고려사항〉

심의항목	주요 지표	고려 사항
영세성	사업체 규모의 영세성	△업종 내 소상공인 사업체 비율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등
	사업체 소득의 영세성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 평균임금 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소상공인의 취약성	△소상공인의 시장점유율 변동 추이 △소상공인 사업체의 종사자 수 및 영업이익 증감 추이 등
	대기업등의 시장 지배력	△대기업등의 시장 점유율 및 변화 추이 △시장의 규모 및 성장 추이 △규제 및 인허가 등 진입장벽의 정도 등
산업 경쟁력 영향	대내적 영향	△연구개발 투자금액의 비율 및 추이 △시장규모의 증감 추이 △전후방 연관 산업 영향 △특정기업의 독과점 우려 △전문 중견기업에 부정적 영향 등
	대외적 영향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수출 추이 △무역특화지수 및 수입규모 △외국인 투자 영향 △국제적 경쟁 가능성 등
소비자 후생	소비자의 접근성	△재화용역의 형태 및 추이 △연관 기술업종 등의 융복합화 △재화용역의 생산공급 현황 및 역량 등
	소비자의 신뢰성	△관련 규격표준 및 인증제도 △재화용역의 공급실태 등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소상공인 단체가 해당 업종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추천 요청을, 중기부에는 지정 신청을 각각 하면 중기부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고시하게 된다.

특별법에선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요건을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 30% 이상 또는 일정 수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소상공인'과 '생계형' 업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례로 가입된 회원사가 총 51개에서 300개 사이인 중소기업단체의 경우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소상공인 회원사의 숫자가 50개 이상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비율이 아닌 숫자로 할 경우 소상공인 회원사 숫자가 적은 단체도 신청 자격이 돼 소상공인 보호가 아닌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회원사가 300개인 중소기업 단체는 소상공인 회원사가 50개만 되도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비율로는 17%밖에 되질 않아 신청이 난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낸 논평에서 "소상공인 비율이 너무 낮으면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청 여부를 판단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소상공인 단체의 경우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을 아예 90% 이상으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단체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했고, 신청 문턱을 높이면 보호받아야 할 영세 업종들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아울러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신청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대기업·중소기업단체간 협의를 통해 자율합의하는 방식이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성·보호 필요성·산업경쟁력 영향 등과 관련해 각종 통계·조사분석을 통해 심의 지정하는 것인 만큼 지정 여부가 신청단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심의해 지정하는 심의위원회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대표 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과 함께 ▲산업경쟁력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위반에 따른 패널티도 적지 않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을 인수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원칙적으로 막힌다.

특히 위법시에는 시정명령을 거쳐 해당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의 5%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도 물어야 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자료=서울시 /뉴시스

서울 하루 출생아 200명선 첫 붕괴

市, 2018 서울통계연보 발표
지난해 하루평균 179명 불과
실업률 늘고 혼인 줄어든 탓

서울에서 '인구 절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하루 평균 179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집계 이래 처음으로 일평균 출생인원이 200명 밑으로 떨어졌다.

취업이 어렵고, 결혼도 늦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실업률은 늘고 혼인 수는 줄었다. 지난해 서울의 실업률은 4.5%로 직전년도 4.2% 대비 0.3% 포인트 증가했다. 2012년 하루 196쌍이던 혼인 수는 2013년 189쌍, 2015년 176쌍, 2017년에는 147쌍으로 내려앉았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서울통계연보'를 발표했다. 연보는 2017년 인구·경제·주택 등 20개 분야 340개 주요 통계를 수록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의 총인구는 약 1012만명으로 전년보다 8만명 정도 줄어 인구 천만명 선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65세 이상 인구가 6만명 이상 늘어나면서 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됐다.

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57명이던 신생아 수는 2013년 230명, 2016년 206명에서 2017년 179명으로 감소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136만50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6만4249명 증가했다. 서울시 전체 인구의 13.5%에 해당하는 수치다.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로,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로, 20% 이상인 경우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지금의 추세를 보면, 서울은 올해 고령 사회에 진입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5명 중 1명은 독거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25.8%였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6만명, 저소득 노인은 1만9000명이었다.

서울의 총인구는 지난해 1012만4579명이었다. 2010년 1057만5447명에서 2017년 1012만4579명으로 7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라 인구밀도도 낮아졌다. 서울의 인구밀도는 2010년 1만7473명/㎢에서 2017년 1만6728명/㎢로 감소했다.

서울 시민의 평균연령은 41.6세였다.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증가해 부양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소년(0~14세) 인구 감소로 생산가능 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은 2010년 17.8명에서 2017년 14.9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해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2010년 12.4명 부양하던 것이 2017년 17.9명으로 늘어났다.

'2018 서울통계연보'는 서울통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hjk1@

'경고등' 켜진 韓 경제… 文 대통령 나섰다

文 대통령,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경제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최근 한국 경제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지면서 대통령이 최근 출범한 2기 경제팀과 함께 경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확대경제장관회의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왔다. 확대경제장관회의 참석자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첫 정례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19년 경제정책방향' 등에 대한 경제 현안을 보고받았다.

기재부는 매년 12월 중순을 즈음해 이듬해 경제정책방향을 확정짓고 발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취임해 하루 만에 대통령 보고까지 하게 됐다.

김 대변인은 "보고는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겨 11시부터 12시40분까지 100분 동안 이어졌다"면서 "문 대통령은 부총리의 보고를 받고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팀은 신임 부총리 중심의 원팀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시중銀, 해외점포 관리 미흡

中 국민銀 국제수지 누락보고 등
유럽 신한銀 특별감독관 파견 조치
中 하나銀 벌금 총 139만 위안 납부

시중은행의 해외 거점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은행 간 생존경쟁이 치열한 국제무대에서 뒤처지는 요인이자 비용 낭비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한금융(2020 프로젝트), KB금융(아시아 톱10·글로벌 톱50), 하나금융(2025년까지 국내 1위·아시아 5위·세계 40위), 우리은행(2020년까지 아시아 톱10·글로벌 톱50) 등은 세계적인 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목표로 뛰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상해분행은 올해 4월 5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민은행은 "국가외환관리국 현장검사(2017년 9월13일~9월18일) 국제수지 누락보고 6건, 착오보고 2건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 제6조, 국제수지통계신고방법 제10조, 은행을 통한 국제수지 신고업무 실시세칙 제3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신한은행은 올해 현지에서 특별감독관 파견(Special Representative) 조치를 받았다.

은행은 "지난해 분데스뱅크·바핀의 리스크부문 감사결과에서 리스크관리 수준이 미흡해 감독당국이 선정한 특별감독관 파견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리스크담당 전문인력 주재원 발령(1월) 후 리스크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특별감독관은 5월부터 업무 수행 예정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는 지난 2월 53만 위안(CNY)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은행은 "고객신분식별의무 이행 미흡, 혐의거래보고의무 이행 미흡으로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는 3월에도 "자금세탁방지 고객신분확인 소홀 등을 사유로 벌금 86만 위안을 납부했다"고 분기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전문가들은 해외지점의 제재가 국내 은행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대륙별로 세계 100대 은행의 지난 2013~2017년 5개년간 평균 수익성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5.75%로 해외 은행 평균인 10.29%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호 기자 kmh@

베일 벗은 정의선 수석부회장 인사스타일

전문성 검증된 리더 통한 자율경영… 기술중심·혁신도 강조

'자율'·'외부개방' 핵심에 관심 쏠려
대대적 인사 속 안정감·균형감 유지

현대자동차그룹의 12일 계열사 사장단 인사는 '자율'과 '외부개방'을 핵심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정의선 수석부회장 체제의 첫 인사를 통해 정 수석부회장의 경영 스타일을 점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수년째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인사는 대대적인 세대교체와 함께 정의선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채제가 재편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정몽구 회장을 보좌해오던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2선으로 물러나고 정의선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그룹 경영체계가 새롭게 정립됐다.

정의선 부회장은 지난 9월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수석부회장 자리에 오른 뒤 미래 경쟁력 분야 및 중국 등 해외 사업 부문에 대한 쇄신 인사를 통해 조직 재편을 계속 추진해 왔다. 중국을 시작으로 이달 초에는 미국과 인도 등 일부 해외 권역본부의 수장을 새롭게 교체했다.

우유철(禹惟哲)
현대로템 부회장

▲ 1957년생(61)
▲ 뉴욕주립대 기계공학 박사, 서울대 조선공학 석/학사
▲ 주요경력
-현대제철 대표이사 (부회장)
-현대제철 생산총괄, 당진제철소장, 제철사업총괄/구매본부장(겸) (사장)

정진행(鄭鎭行)
현대건설 부회장

▲ 1955년생(63)
▲ 서강대 무역학 학사
▲ 주요경력
- 현대자동차 전략기획담당 (사장/부사장)
- 현대자동차 유럽총괄법인장 (전무)
- 현대자동차 아/태지역본부장 (상무)

김용환(金容煥)
현대제철 부회장

▲ 1956년생(62)
▲ 고려대 경영학 석사, 동국대 무역학 학사
▲ 주요경력
-현대자동차 기획조정실장, 구매/감사실/전략기획담당/법무실/글로벌경영연구소/인재개발원 담당부회장(겸) (부회장)

이번 계열사 사장단 인사 역시 예년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대규모로 이뤄졌다. 통상 승진 인사 이후 보직 인사를 따로 내왔던 현대차그룹이 이번에는 인사를 한 번에 묶은 것이다.

인사의 방점은 세대교체와 정의선 시대의 본격 개막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 전문성과 리더십 검증이 끝난 경영진들을 주요 계열사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그룹 전체에 대한 자율경영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전문성과 리더십이 검증된 경영진들을 주요 계열사에 배치함에 따라 경영혁신과 변화를 가속화할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북미와 유럽, 인도, 러시아 등에 글로벌 권역본부를 설립하고 현장 중심의 자율경영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정 부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의 전략 강화를 위해 파격 인사도 단행했다. 정 부회장은 그룹의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부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현대·기아차 차량 성능담당 알버트 비어만 사장을 신임 연구개발본부장에 임명했으며, 현대오트론 조성환 부사장을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부본부장으로 발령했다. 외국인 임원을 연구개발본부장에 임명한 것은 처음으로, 실력 위주의 글로벌 핵심 인재 중용을 통한 미래 핵심 경쟁력 강화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현대차그룹 측은 설명했다.

비어만 사장은 2015년 현대차그룹 합류 이후 신차 성능 개선에 크게 기여했고, 고성능차 사업의 성공적 시장 진입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비어만 사장은 연구개발본부의 일하는 방식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정 부회장이 평소 강조해온 'IT 기업보다 더 IT 기업' 같은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지영조 부사장의 사장 승진으로 전략기술본부의 위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부회장이 강조한 '스마트 모빌리트 솔루션 제공 업체'로의 전환 계획도 속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에 대한 핵심과제 수행 등의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최근 중국 및 해외사업 부문의 대규모 임원 인사에 이어 그룹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룹 차원의 인적 쇄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며 "특히 전문성과 리더십이 검증된 경영진들을 주요 계열사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대대적인 인적 쇄신 속에서도 안정감과 균형감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새로 임명된 주요 계열사 사장단 대부분이 50대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임 현대로템 대표이사에 내정된 이건용 부사장, 현대다이모스-현대파워텍 합병 법인의 여수동 사장, 신임 현대오트론 문대흥 사장, 현대케피코의 방창섭 신임 대표 내정자 등이 모두 50대다.

이처럼 대대적인 인사를 진행하면서도 그룹의 주요 부회장과 사장들을 계열사 임원 자리에 배치함으로써 안정감과 균형감을 유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룹과의 원활한 소통이 기대됨은 물론 과거 경험과 역량을 계열사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평가다.

신임 현대로템 부회장에 임명된 우유철 부회장은 과거 현대로템에서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했으며, 현대건설 부회장으로 임명된 정진행 사장도 현대건설에 입사, 자재구매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현대·기아차 생산개발본부장 서보신 부사장을 생산품질담당 사장으로, 홍보실장 공영운 부사장은 전략기획담당 사장으로 각각 승진해 보임됐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인사 주요 프로필

알버트 비어만 (Albert Biermann)
현대자동차 사장

▲ 1957년생(61)
▲ 아헨공대 기계공학 석사/학사

지영조(池永朝)
현대자동차 사장

▲ 1959년생(59)
▲ 브라운대 응용수학 박사, 브라운대 기계공학 석사/학사

공영운(孔泳云)
현대자동차 사장

▲ 1964년생(54)
▲ 서울대 경영학 학사

서보신(徐補信)
현대자동차 사장

▲ 1957년생(61)
▲ 한양대 정밀기계공학 학사

박정국(朴禎國)
현대모비스 사장

▲ 1957년생(61)
▲ 서울대 기계공학 석사/학사

황유노(黃有老)
현대캐피탈 사장

▲ 1958년생(60)
▲ 홍익대 경영학 학사

여수동(呂洙東)
현대다이모스/
현대파워텍 사장(겸직)

▲ 1961년생(57)
▲ 영남대 경영학 학사

문대흥(文大興)
현대오트론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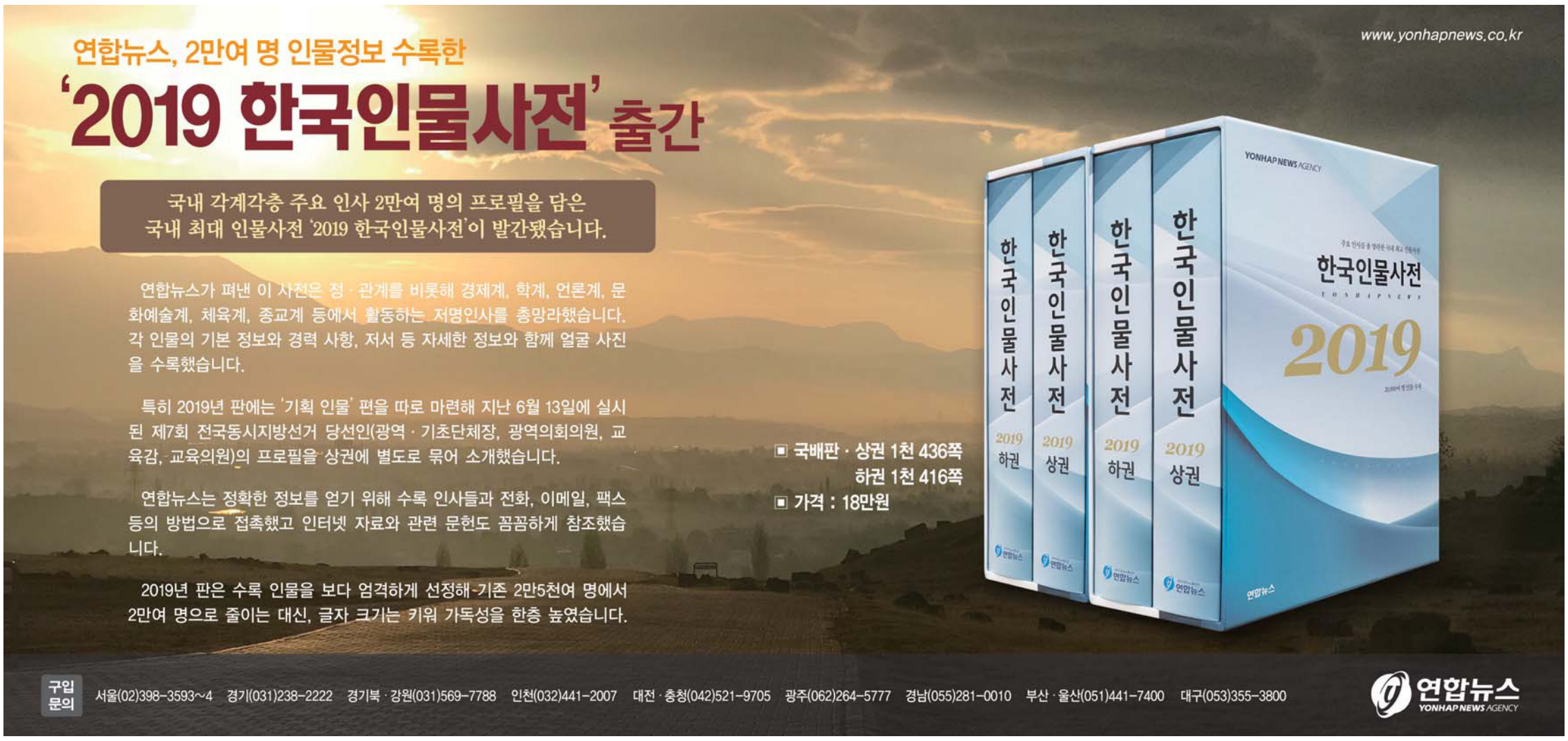
▲ 1960년생(58)
▲ KAIST 기계공학 석사, 한양대 기계공학 학사

이건용(李建鎔)
현대로템 부사장

▲ 1960년생(58)
▲ 한양대 생산기계공학 학사

방창섭(方昌燮)
현대케피코 부사장

▲ 1960년생(58)
▲ 크랜필드대 기계공학 석사, 경북대 기계공학 학사



하루 만에 1.5만좌… 카뱅 '모임통장' 심상찮은 돌풍

kakaobank

출시 일주일 만에 5.3만좌 돌파
타은행계좌도 가능해 가입 용이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메시지 카드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이 출시 일주일 여만에 계좌수가 5만3000좌를 돌파했다.

올해 초 선보인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비롯해 '26주 자유적금',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내 신용정보'에 이어 모임통장까지 흥행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12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모임통장 계좌수는 전일 자정을 기준으로 5만3000 계좌를 넘어섰다. 지난 3일 출시한 이후 일주일 여 만이다.

모임통장 서비스는 모임주가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전환하거나 새 계좌를 개설해 모임통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모임통장은 출시 후 만 하루 동안에 1만5000좌가 개설될 정도로 초반부터 반응이 좋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모임통장 특성상 개인이 가입한 통장을 함께 공유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계좌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작은 불편함들을 개선해 일상에서 쉽고 편리하게 만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 모임통장은 새로운 상품이 아니다. 기존 시중은행들이 이전부터 모임통장 기능을 제공해왔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다. 모임통장을 만드려면 해당 은행의 계좌와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한데다 모임 회원들도 모두 해당 은행의 계좌가 있어야 하는 등 번거로웠다.

반면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소셜의 기능은 더하고, 모임원이 모두 같은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은 뺐다. 카카오톡의 '초대'와 '공유' 기능을 십분 활용한 결과다.

모임주는 해당 모임의 단체 대화방(카톡방)에 초대장을 보내 모임 구성원들을 모임멤버로 초대할 수 있다. 모임통장 1계좌 당 참여 가능한 모임멤버는 최대 100명이다.

모임 구성원은 카카오뱅크 계좌가 없어도 된다. 모임통장의 거래 내역은 모임주가 본인 개인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모임멤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재미도 더해졌다. 모임주는 카카오톡으로 멤버들에게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메시지 카드를 보내 모임 회비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새로 내놓는 상품마다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대출잔액은 7350억원에 달하며, '재미'라는 요소를 내세운 26주 적금은 59만좌로 60만좌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신용정보 조회는 지난 10월 말 서비스를 시작한지 한달 반 만에 110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고객수는 729만 명이다. 수신과 여신은 각각 9조7700억원, 8조8000억원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NH농협금융지주

신임 부사장에 최창수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0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최창수 현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사진)을 부사장(사내이사)으로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신임 부사장은 1961년생으로 시군지부장과 지점장, 인재개발원 부원장, 비서실장을 거쳐 올해부터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을 맡아왔다.

최 신임 부사장은 농협 내 대표적인 기획·전략통으로 합리적인 업무스타일과 정확하고 빠른 의사결정으로 대내외 신망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기는 2019년 1월 1일 부터 1년이다. /안상미 기자

지난 1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신한 쏠(SOL) 가입자 800만명 돌파 기념식'에서 위성호 은행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모바일 플랫폼 '쏠' 가입자 800만명 돌파

신한은행 내년 1000만 달성 전망

신한은행은 모바일 플랫폼 '쏠(SOL)' 가입자가 지난 11일 기준 800만명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신한 쏠(SOL) 가입자는 지난 2월 정식 오픈 이후 지난 10월 8개월 만에 700만 명을 돌파했고, 다시 두 달만에 800만 명을 넘어섰다.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내년 상반기 중 1000만 고객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위성호 은행장과 임직원들은 이를 기념해 지난 11일 본점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서 위 행장은 "쏠(SOL)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을 이용해 초 맞춤(Super Customization)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자"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국내 거주 외국인, 해외송금 모바일로 하세요"

KEB하나은행-웨스턴 유니온

모바일해외송금 서비스 MOU

KEB하나은행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세계 최대 송금 결제 네트워크 기업인 웨스턴 유니온(The Western Union Company)과 모바일 해외송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웨스턴 유니온이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급 결제 서비스 공급 협약(Payout and Settlement Service Provider Agreement)'을 통해 향후 모바일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키로 했으며 그 외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 방안 및 전 세계 송금 지불 시장 관련 정보 공유와 글로벌 사업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왼쪽)과 힉멧 얼섹(Hikmet Ersek) 회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모바일 해외송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로써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웨스턴 유니온의 200여개국 55만 가맹점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24시간 365일 간편하고 편리하게 모바일 무계좌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웨스턴 유니온이 한국에서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힉멧 얼섹(Hikmet Ersek) 회장(President & CEO)이 직접 방문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본국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외국환 전문 은행의 위상에 걸 맞는 외국인 손님 대상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kmh@

KB국민銀, 코이카 등과 미세먼지 머리 맞댄다

KB국민은행은 12일 코이카(KOICA), 푸른아시아와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발원지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 손봉호 푸른아시아 이사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국장, 밧차이칸(P. Batsaikhan) 주한몽골대사관 경제참사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몽골 미세먼지 발원지를 관리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KB국민은행은 지난 10월 몽골 불간 아이막(道) 바양노르솜(郡)에 방풍림 및 유실수로 구성된 'KB국민의 맑은하늘 숲'을 조성했고, 추가조

(왼쪽부터)허인 KB국민은행장, 이미경 KOICA 이사장, 손봉호 푸른아시아 이사장이 12일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발원지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림을 추진 중이다. 코이카는 숲에서 수확한 유실수를 활용해 몽골 기후변화 피해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자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푸른 아시아는 해당사업의 실행을 담당하게 된다. /안상미 기자

"스타트업 홍보·육성"… 위비핀테크랩 시네마 데모데이

우리은행 관계자 300여 명 참석

우리은행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제3회 '위비핀테크랩 시네마 데모데이(Demo-Day)'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위비핀테크랩'을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에 대한 홍보와 투자유치를 위해 매년 데모데이 행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및 금융권 관계자, 벤처투자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위비핀테크랩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각사의 사업모델과 기술력을 발표하고 투자유치와 기술판매계약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기업별 발표내용은 ▲턴온(자동이체 관리) ▲엘핀(위치기반 인증) ▲엠로보(인공지능기반 맞춤형투자콘텐츠) ▲트라이월드홀딩스(차량수리보증) ▲페이플(간편계좌결제) ▲소프트런치(결제데이터 분석솔루션) ▲온인슈어(해외배송 보험대행 플랫폼) ▲인터웨어(GPU활용 빅데이터 분석솔루션) ▲캐시멜로(해외 모바일 환전서비스) 등이다.

지난 11일 우리은행이 개최한 제3회 '위비핀테크랩 시네마 데모데이(Demo-Day)'에서 우리은행 관계자와 스타트업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최진열 턴온아아엔씨 대표, 안상선 엠로보 대표, 박영경 엘핀 대표, 이종진 온인슈어 대표, 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부문장, 김종욱 영화감독, 김현철 페이플 대표, 이성호 인터웨어 대표, 배진흥 소프트런치 대표, 윤형운 캐시멜로 대표, 황원철 우리은행 디지털금융그룹 상무.

다양한 볼거리도 함께 제공됐다. 스타트업을 소재로 제작된 김종욱 감독의 창작영화 '대한민국 김대표 디데이(D-Day)'가 상영됐으며,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가수정 화가의 작품이 전시됐다. 인공지능 기술로 참가자들의 초상화를 즉석에서 그려주는 이벤트도 있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우리은행에서 육성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홍보 뿐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금융 기술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위한 자리였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핀테크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세이프가드에도 '꿋꿋'… 이젠 프리미엄으로 날아오른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 무술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 악재가 겹치면서 해외 수출 감소로 인한 부진을 면치 못했다. 메트로신문은 주요 산업별로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전망해 본다. 〈편집자주〉

2019 업종전망

❶ 전자가 희망이다

美 보호무역 거센 압박에도
올해 3분기 업계 최대실적
제품 고도화·가치소비 영향
스타일러 등 다양한 호재 기대

올해 TV 시장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OLED TV가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8K QLED를 내놓고 1위 수성에 나섰다. 사진은 삼성전자 8K QLED TV와 한종희 삼성전자 사장. /삼성전자

LG전자의 프리미엄 브랜드 시그니처는 미국 블루밍데일스 백화점에 가전업계 최초로 입점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다. /LG전자

연초만 해도 전문가들은 올해 전자 업종 성장 곡선이 한풀 꺾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보호무역 확대와 반도체 고점 논란 등이 악재로 지목됐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3분기 업계는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성장했고, 내년에도 시장 전망은 나쁘지 않은 상태다. 꾸준한 노력을 통해 내실을 다진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가전, 세이프가드로 수혜

상반기 전자 업계는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미국이 국산 세탁기를 겨냥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가전 부문 타격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결과는 반대였다. LG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을 1조1078억원 달성하며 전년비 20.2%나 실적을 더 올렸다. 삼성전자 CE부문이 전년보다 26.3% 줄어든 영업이익 2800억원을 기록했지만, 세탁기 등 제품 판매는 오히려 늘었다. 원자재가 상승 등 외부 요인이 영업이익을 축소했을 뿐이었다.

비결은 철저한 준비였다. LG전자는 1분기 컨퍼런스콜을 통해 "이미 최악의 상황을 설정하고 시나리오 대로 대응했다"고 호실적 배경을 설명했다. 삼성전자도 이미 현지 공장 가동율을 높이면서 변화에 대응한 후였다.

오히려 미국 가전 업체 월풀은 순이익이 전년보다 60% 이상 폭락한 9400만달러에 머물면서 위기를 가속화했다. GE도 11억8000만달러 순손실을 나타내면서 세이프가드 수혜를 전혀 입지 못했다.

◆프리미엄 TV 성장 본격화

TV 시장에도 올해는 새로운 분기점을 마련하고 내년 도약을 준비하는 기회였다. 크고 고급스러운 제품이 인기를 빠르게 늘리면서다.

특히 OLED TV는 올해 전체 TV 시장에서 점유율 1%를 돌파하는 성과를 올릴 전망이다. 소니 등 글로벌 가전사들이 새로 OLED 노선을 선택하면서다.

OLED 시장을 이끌어온 LG전자는 TV 시장에서 단연 최고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2013년 OLED TV를 시작한 후 지속된 적자에도 공을 들여온 덕분에, 가장 높은 기술력으로 시장 점유율을 70% 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연말까지 OLED TV를 192만대 가량 판매할 예정이다. 하반기 성수기를 맞아 마케팅을 가속화하면서 200만대 돌파 가능성도 점쳐진다. LG전자 TV 매출에서 OLED TV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약 20%에서 올해 약 30%로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여전한 TV 시장 1위다. IHS마킷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까지 매출 기준 TV 시장을 28.9% 점유하고 있다. LG전자가 16.8%로 차이가 적지 않다.

다만 OLED TV에 빠르게 추격당하는 상황이다.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는 QLED 점유율이 OLED TV에 밀려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미엄 가전 새 트렌드로

프리미엄 바람은 가전 시장에도 함께 불었다. 가전제품이 고도화되는 데다, 1인가구 증가 및 '가치 소비'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장규모가 18조원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LG전자 시그니처는 올해 프리미엄 가전 시장을 주도해왔다. 2016년 론칭 후 꾸준히 시장을 공략해 프리미엄 가전 시장 대표 브랜드로 거듭났다. 미국 고급 백화점인 블루밍데일스에 가전 브랜드 최초로 입점하는 등 자리를 확고히했다.

편의성을 위한 가전 인기도 크게 치솟았다. 의류관리 가전 원조격인 LG전자 스타일러가 전년비 2배 가량 판매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삼성전자 에어드레서 등도 뒤를 따르고 있다. 건조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16㎏ 대형 제품까지 속속 출시됐다.

건강 가전도 각광받았다. 중국을 중심으로한 동아시아에서 현상이 두드러졌다.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에 따른 건강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이슨이 신형 제품인 핫앤쿨을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에 우선 들어오기도 했다.

LG전자는 오브제로 프리미엄 가전 시장에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했다. 가전과 가구의 결합이다. 우선 TV와 오디오, 공기청정기와 냉장고 4개 제품을 출시했다. 가전에 수납 공간을 결합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문 제작 형태로 고급감을 극대화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가전 시장은 악재 속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해 좋은 실적을 거두는 데 성공했다"며 "오랜 노력이 일궈낸 성과다. 내년 전자 시장은 다양한 호재를 통해 더욱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행복GPS' 보급대상 확대

SK하이닉스가 '행복GPS' 지원을 확대한다.

SK하이닉스는 최근 경찰청과 함께 '행복GPS' 보급 대상을 발달장애 계층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행복GPS는 기억장애 계층을 보호하고 실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웨어러블 배회감지기다. 2017년 8월부터 치매어르신 1만명에 무상 지원됐고, 2020년까지 5000대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행복GPS는 도입 후 치매어르신 49명을 실종 후 무사히 귀가시키는 실적을 세웠다. 실종에서 발견까지 소요시간도 12시간에서 1시간으로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경찰청은 2019년까지 상습실종신고 고위험군 발달장애인에 행복GPS를 2000대 추가 지원키로 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500명에는 12월 우선 보급한다.

김항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은 "배회감지기 보급대상자를 확대하여 실종 치매노인과 발달장애인 발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사회안전망 확대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동체 치안'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IMO 규제임박… 선복량 증가율 둔화될 듯

〈국제해사기구〉

스크러버 설치·저유황유 사용해야
일정기간 운항 불가능·고단가 발목

현대상선 컨테이너선

2020년에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로 내년 드라이벌크 선복량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2018년 선복량 증가율은 드라이벌크운임지수(BDI) 상승으로 당초 예상보다 폐선 규모가 축소되면서 상승했다. 반면 오는 2019년 드라이벌크 선복량 증가율은 전년대비 1.9%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황산화물 배출 규제를 하게 되면 선박 연료의 황 함량을 기존 3.5%에서 0.5%로 낮춰야 하기 때문에 선사들은 스크러버(황산화물저감장치) 장착하거나 저유황유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선박에 스크러버를 장착하는 경우 설치를 위해 일정 기간 선박 운항이 불가능하다. 고단가의 저유황유로 전환하는 방식을 결정하더라도 선사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감속 운항이 불가피하다. 특히 연료 효율이 떨어지는 노후 선박은 스크러버를 설치하더라도 비용 회수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폐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IMO의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유류할증료 인상에 따른 드라이벌크 운임지수(BDI)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 선사들이 고단가의 저유황유 투입을 통한 비용 상승분을 운임에 전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수급 조건이 필수적이다.

반면 해상물동량 증가율은 전 세계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여파에도 선복량 증가율을 웃돌 거라는 진단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

티웨이항공 항공기 /티웨이항공

티웨이 베트남 하늘길, LCC 중 최다 운영

티웨이항공은 인천·부산~하노이 노선에 신규 취항하며 LCC(저비용항공사) 중 베트남 노선을 가장 많이 운영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오는 20일에는 인천~하노이 노선, 22일에는 부산~하노이 노선의 신규 취항식을 개최한다. 기존 5개 노선(인천~호찌민, 인천·대구·부산~다낭)을 더하면 베트남 노선은 총 7개로 늘어나 LCC 중 최다노선을 운영하게 된다. 티웨이의 베트남 노선 탑승률은 평균 85%가 넘는다.

티웨이항공은 대구·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지방발 노선의 균형적인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어디서나 베트남으로 떠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지난 6월 국내 LCC 중 최초로 베트남 현지의 객실승무원을 채용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LG그램 17' 내일부터 예약판매 시작

LG전자가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019년형 LG 그램 신제품인 'LG 그램 17' 예약판매를 진행한다.

LG전자는 기존 13.3, 14, 15.6인치에 이어 17인치 모델인 LG 그램 17을 앞세워 대화면 노트북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 그램 17은 화면 크기는 커졌지만 무게는 1340g이다. 13인치대 노트북 무게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판매 중인 17인치대 노트북 가운데 가장 가볍다.

LG 그램 17은 2560×1600 해상도의 WQXGA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을 구현한다. 얼마나 다양한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규격인 sRGB 기준 96% 수준을 구현해 색 표현도 정확하다.

이 제품의 화면 비율은 16:10이다.

16:9 비율보다 아래쪽에 숨겨진 화면을 더 보여줘 사진·영상 편집, 문서 작업 등이 더 편리하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보안문제 없다지만… LGU+, 5G 시작부터 '좌불안석'

화웨이 사태 국내 파장은

5G·유선망 보안 이슈 재점화
이통 3사, 美·中 갈등 예의주시

화웨이 5G 장비 택한 LGU+ 긴장
KT도 은행망 장비 선택에 우려

세계 1위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 사태로 미중 갈등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통신 장비 보안 이슈가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5G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LG유플러스는 자체 보안 검증, 국제 표준 인증 등을 통해 전사적으로 보안 이슈에 대응하며 미중 갈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2일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법원은 11일(현지시간) 멍완저우 부회장을 조건부로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구속을 벗어난 상태이긴 하지만 미중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어 국내에서도 이들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화웨이는 통신장비 시장에서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IHS마킷에 따르면 화웨이의 통신장비 분야 시장 점유율은 22%로 세계 1위다.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겸 글로벌 최고재무책임자(CFO)

이번에 체포된 멍완저우는 화웨이를 설립한 런정페이의 딸로, 실질적인 2인자다. 외신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이 화웨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화웨이 갈등 전선이 확산되며 호주, 뉴질랜드, 영국에 이어 일본 정부 또한 중국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들이 문제로 삼은 것은 '보안'이다. 2012년 화웨이 장비가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의회 보고서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보안 이슈가 불거졌다. 올 들어 미국 상원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부기관이 중국 화웨이와 ZTE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 정부가 장비를 악용, 금융거래 정보 등을 불법 수집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내 기업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해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 모두 화웨이의 고객사다.

특히 유선망 사업에서 이동통신 3사는 화웨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KT와는 농협 통신망 고도화 사업에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다. 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전국 6200여개 농협은행뿐 아니라 단위농협, 축협을 네트워크로 잇는 전용회선을 구축하는 게 중점이다. 내년부터 5년간 총 1200억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한다. 은행의 경우 보안 문제가 불거지면 금융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장고 끝에 화웨이 5G 장비를 도입하기로 한 LG유플러스의 고민도 크다. LG유플러스는 5G 기지국 4133개를 설치해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5G 기지국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이 화웨이 장비를 주력으로 쓰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보안과 관련해서는 전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웨이뿐만 아니라 장비업체, 전 공급망에 대해 보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를 불러 소스코드까지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국제검증기관의 도움을 받아 우려하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안 우려를 불식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자체적으로는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개발검증시험(DVT) 등 자체 보안 검증을 강화하고, 정부의 보안 가이드라인 항목 준수 및 검증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보안 관련 강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보보안을 위한 국제 표준인 CC인증과 관련해서 이미 검증 절차를 시작했고 내년 중순께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정부의 5G 보안기술자문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미비점을 발견하면 즉시 개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중립적인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신축 건물에 5G 인빌딩 안테나를 설치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건물 내 5G 안테나 개발

5G 사각지대 없애는 인빌딩 중계기
대형건물 안에서도 원활한 통신 가능

LG유플러스는 건물 안에서 스마트폰 등 5G 단말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5G 인빌딩 안테나 개발을 완료하고 설치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형 건물들은 벽 등이 많기 때문에 전파가 건물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손실율이 높아 롱텀에볼루션(LTE), 5G 등 무선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인빌딩 중계기, 인빌딩 안테나 등 인빌딩 전용 장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5G 스마트폰 등이 보급되고 5G 인빌딩 중계기가 설치되면 건물 밖은 물론 대형 건물 안에서도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LG유플러스는 이 안테나를 중소 제조사인 선우커뮤니케이션, AT&S와 함께 개발했다.

새로 개발된 5G 인빌딩 안테나는 5G 주파수와 LTE 주파수를 수용하도록 설계됐다. 이 안테나를 설치하면 향후 건물 안에서 안테나를 교체하거나 별도의 5G용 안테나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불편함 없이 5G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김나인 기자

KT, 스웨덴에도 5G 노하우 전수

'5G 디벨롭먼트 세미나' 참여

KT가 스웨덴에도 5G 노하우를 공유했다.

KT는 11일부터 이틀간 스웨덴 에린슨 본사에서 열린 '5G 디벨롭먼트 세미나'에서 5G 차별화 기술 논의와 평창 올림픽 성과 및 상용화 계획을 공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주요 통신 사업자와 제조사를 초청해 5G 기술 협력과 활용 사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릭슨이 주최해 스웨덴 '텔리아 컴퍼니'를 비롯한 여러 사업자 및 제조사가 참석했다.

KT는 국내 통신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초청됐다. 지난 1일 상용화한 5G MHS 현황을 소개하고 새로운 서비스 준비 내용을 설명했다. 에릭슨과 초고신뢰 저지연통신(URLLC) 등 기술 상용화 협력도 약속했다.

/김재웅 기자 juk@

현대위아, 4륜구동 통합제어 부품 양산

'전자식 커플링' 국내 첫 개발
현대차 팰리세이드에 장착

현대위아가 전자식 4륜 구동 통합 제어 부품인 '전자식 커플링'을 개발해 국내 최초로 양산한다.

12일 현대위아에 따르면 전자식 커플링은 지형 조건에 따라 최적의 구동력을 자동차 네 바퀴에 배분하는 AWD 통합 제어 부품이다. 이 전자식 커플링은 11일 출시된 현대차 팰리세이드에 장착된다. 현대위아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통해 2024년까지 연 70만대 이상의 전자식 커플링을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자식 커플링은 글로벌 부품업체 마그나파워트레인과 현대위아가 2009년 공동으로 설립한 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에서 양산될 예정이다.

현대위아 연구원들이 12일 경기도 의왕시 현대위아 의왕연구소에서 4륜 구동 통합 제어 부품인 '전자식 커플링'을 테스트하고 있다. /현대위아

현대위아의 전자식 커플링은 스노우 모드, 샌드 모드, 머드 모드 등 험로 주행 모드를 적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1초당 100번의 연산으로 주행 상황이 바뀌는 것을 감지, 0.15초 내로 최적의 구동력을 바퀴에 배분하도록 하는 등 속도를 극대화했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동부 지역의 데스밸리 등 사막 지역과 스웨덴 아르예플로그 지역에서 강도 높은 혹서기, 혹한기 테스트를 2년 넘게 진행했다"며 "어떤 노면, 어떤 주행 상황에서도 운전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식 커플링 양산으로 AWD 구동 및 제어부품을 모두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보다 적극적인 영업 활동으로 글로벌 자동차 부품 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호반그룹, 협력사 상생협력기금 200억 출연

협력 기업의 기여도 따라 인센티브
하도급대금 전액 열흘내 지급 약속

호반건설 등을 계열사로 둔 호반그룹이 협력사를 돕기 위한 상생협력기금 200억원을 출연하며 동반성장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호반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상생협력 확산과 건설 협력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호반그룹이 출연키로 약속한 200억원은 중견기업, 건설업종을 영위하는 회사 가운데 최대 규모다.

호반그룹은 상생협력기금 200억원을 동반성장 투자재원으로 협력재단에 출연하고 협력 기업의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호반그룹은 호반건설을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전액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2차 이하 협력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과정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하도급 대금 10일 이내 지급은 전 계열사로 점점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호반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협력 확산과 건설 협력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호반산업 김진원 대표, 호반건설 송종민 대표, 중기부 홍종학 장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경무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아울러 그룹내 계열사에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협력사가 원가이하로 무리하게 입찰할 때 적정 납품단가를 심의·조정하는 저가심의제도 운영 등 결제환경 개선 노력도 적극 펼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삼성생명 SAMSUNG

연말정산 고민된다면?

삼성생명 IRP로 절세혜택!

소득에 따라 연간 **최대 92만원 세제혜택**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 / 세액공제 한도 연간 700만원, 관련 세법 충족 시)

- IRP EVENT -

18.11월~12월 신규가입후 연말까지 300만원 이상 납입고객 이마트/GS칼텍스 결합 2만원 모바일쿠폰 지급합니다.

(단, 상품소개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고객 限 19.1월중순 지급)

절세혜택 가능한 삼성생명 IRP

IRP(개인형퇴직연금)란?

IRP는 절세, 투자, 노후연금수령! 3가지 혜택과
다양한 상품 운용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 상품입니다.
(개인자금과 퇴직금을 함께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 가입방법

삼성생명
홈페이지 접속
↓
IRP 가입 클릭

삼성생명
모바일창구 접속
↓
IRP 가입 클릭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7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또는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3.2%가 적용됩니다. ※ 2017.1.1.이후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연간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연간 400만원에서 300만으로 축소 되었습니다.(연금수령 외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16.5% 발생)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100만원은 IRP를 통해 세액 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전 운용관리 계약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생명은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본 이벤트는 삼성생명의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삼성생명 퇴직연금 전담콜센터(1588-3115)로 문의하시거나 삼성생명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생명 퇴직연금 전담콜센터 | 1588-3115

생명보험협회심의필 제 2018-04109호(2018.11.20)

증권 다이제스트

하이투자증권

"연금으로 ETF 매매하세요"

하이투자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고객, 연금저축 고객이 연금 자산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동시에 출시했다. ETF를 투자할 때의 장점은 무엇보다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과 낮은 거래 비용에 있다. 일반적으로 펀드 환매시 국내펀드는 2~3일, 해외펀드는 8일 정도 소요되는 반면에 ETF는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어서 시장변화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또한 ETF는 일반 펀드에 비해 운용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별도의 환매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아 적립금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IRP 및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 최대 700만원(합산기준)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손엄지 기자

키움증권

연 10.5% ELS 공모

키움증권은 낙인배리어 50% 주가연계증권(ELS)을 공모한다. '키움증권 제896회 ELS'는 SK하이닉스 보통주와 유로스톡스50(EUROSTOXX50)지수, 홍콩항셍중국기업(HSCEI)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3년 만기에 6개월마다 상환기회가 주어지는 스텝다운 유형의 상품이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90%(6·12개월), 85%(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70%(36개월) 이상이면 세전 연 10.5%의 수익률로 조기 또는 만기상환된다. /손엄지 기자

SK증권 시럽웰스

화장품 브랜드와 프로모션

SK증권 시럽웰스가 화장품 전문 브랜드 제이준 코스메틱과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 SK증권은 시럽웰스의 금융상품을 4개 이상 가입한 투자자(자산 2000만원 이상)에게 제이준의 고급 마스크팩 10종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럽웰스는 제이준과의 콜라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제이준은 프리미엄 뷰티 제품을 다양한 고객군에게 노출할 수 있어 양사 간 시너지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프로모션은 투자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여성 고객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엄지 기자

산타랠리 사라진 증시… 12월 거래액 '최악'

〈연말·연초 주가 강세 현상〉

11월 8.4조 거래… 전월比 12.5%↓
글로벌 리스크, 국내경제 위축 등
상승 모멘텀 부족 "회복 어려워"

연말이 되면 주식시장에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커지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

산타랠리란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과 신년 초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연말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 배당을 목적으로 한 투자수요 증가 등이 겹치면서 기대되는 이벤트다. 증권가에서는 연말을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식시장에 큰 상승세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실물경제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1월 일평균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은 8조4000억원으로 10월(9조6000억원)에 비해 12.5% 감소했고, 올해 월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12월 들어 지난 11일까지 일평균 거래대금은 8조877억원으로 역시 연간 최저수준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9월 이후 하락추세다. 월간 기준으로 11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9조6135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5월(12조4985억원)보다 23.1% 줄었다. 이달 10일 기준으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9조7230억원이다.

신용거래융자란 개인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할 때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 신용거래융자가 감소하는 것은 그만큼 주가 상승을 예측하는 투자자의 수가 감소했다는 뜻이다. 또 주가 하락이 예상돼 서둘러 신용융자를 상환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증시에 자금이 돌지 않자 주가도 약세다.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달 들어서만 2.09% 하락했다. 연 초 대비 16.79%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다. 이달 수익률은 마이너스(-)4.99%, 연 초와 비교하면 17.21% 내렸다. 보통 연말과 연초에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다. 이른바 '산타랠리' 기대감이다

실제 메리츠종금증권이 2000년대 이후 코스피, 코스닥의 주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12월 마지막 주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경우는 코스피 13번, 코스닥 12번으로 각각 68.4%, 63.2% 확률로 상승했다. 1월 첫째주 플러스 수익을 기록한 확률 역시 각각 66.7%, 94.4%로 나타났다. 또 12월 마지막주와 다음 해 1월 첫째주 누적 수익률은 평균 1.56%, 4.02%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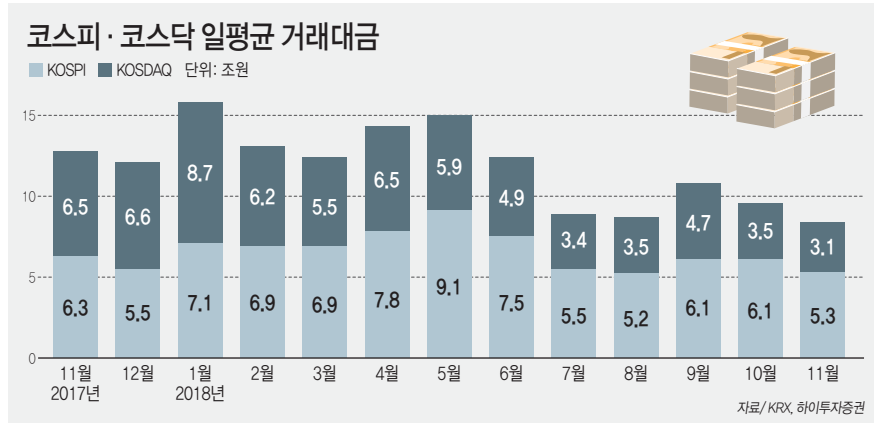
하지만 올해는 '산타'가 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불확실한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과 국내 경제 위축 우려 때문에 주가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7%, 내년도에는 2.6%, 2020년에는 2.5%로 점진적으로 하강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봤다. 또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내년 코스피 주요 상장기업(164개사)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198조5563억원으로 전망했다. 6개월 전 추정치(217조792억원)보다 8.7% 쪼그라든 수준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변수들이 나타나야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주가도 반등하기 마련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경기둔화 ▲유럽의 정치 불안 ▲중국의 환율 변화 등 세 가지 부담 요인이 잔존하는 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또 정다이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켰고 신규 주문 감소, 글로벌 교역량 감소와 같은 실물지표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관망세가 짙어졌다"면서 "올해는 산타랠리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균 개발… 25개국에 제품 수출

IPO간담회

비피도

17·18일 청약, 26일 코스닥 상장

장내 미생물로 아토피·과민성 대장염·류마티스 등 질병의 면역 치료를 연구하는 기업 비피도가 연내 코스닥 시장 진입을 시도한다.

비피도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코스닥 시장 상장에 따른 향후 성장 전략 및 비전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비피도는 한국투자증권 주관으로 이날까지 수요예측을 끝내고 17, 18일 청약을 거쳐 오는 26일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1999년 설립된 비피도는 강원도 홍천에 생산 시설을 두고 장내 미생물을 뜻하는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중 비피도박테리움(Bifidobacterium)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회사다.

지근억 비피도 대표이사가 12일 여의도 기자간담회에서 자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배한님 수습기자

마이크바이옴은 인체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의 군집과 이들 미생물 군집이 가지는 유전 정도 전체를 의미한다.

인체에서 유래한 핵심 균주인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 BGN4'와 '비피도박테리우 롱검 BORI'는 비피도의 기반 기술이다. 두 균주는 올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규 식품원료로 등재됐다.

비피도는 비피도박테리움을 통해 아토피 면역, 과민성장염 등 면역 관련 질환 연구를 지속했다. 최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균을 개발하기도 했다.

새로운 균주를 분리·동정하고 제품화까지 할 수 있는 파마바이오틱스 개발 프로세스인 '비피도-익스프레스 플랫폼' 또한 비피도의 차별화된 장점이다. 현재 25개국 시장에 제품 수출도 하고 있다.

비피도 매출액은 2017년 136억 64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가 늘었다. 영업이익률도 작년에 약 22% 증가해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올해 3분기 매출액만 113억 2500만원으로 작년 매출액을 뛰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근억 비피도 대표이사는 "뇌졸중, 치매, 정신질환, 암 등 문제들이 잘못된 몸 속 나쁜 균인 유해균 때문에 만들어진다 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변 치료법 등 유익균으로 유해균을 몰아내면 높은 치료율을 얻을 수 있다"고 사업 취지를 밝혔다.

비피도는 이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 총 41만 주를 공모한다. 공모 희망가 밴드는 2만2100원~2만8700원으로 최대 117억 6700만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비피도는 이번 공모 자금을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센터 설립 및 신약 개발에 사용할 계획이다. /배한님 수습기자 ericabae1683@

GTX건설 가속… 노선 따라 아파트값 오를까

국토부, C노선 2021년 말 착공
'파주~화성' A노선 연내 첫 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가 가속도를 내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GTX-C노선이 비용편익비율(B/C) 1.36(합격 기준점 1), 종합평가(AHP) 0.616(합격 기준점 0.5)을 받아 사업을 확정했다. 따라서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양주 덕정~경기 수원 74.2㎞)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GTX-C노선은 양주(덕정)~의정부~창동~광운대~청량리~삼성~양재~과천~금정~수원까지 47.9㎞에 이르는 노선이다. 총 사업비는 4조3088억원으로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르다.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경우 이르면 2021년 말 착공하게 된다. 또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GTX-A 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의 연내 착공 가능성이 높아졌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을 잇는 총 83.1㎞ 구간이다. 예정대로 2023년 GTX-A 노선이 개통되면 동탄~삼성역 운행시간은 현재 77분에서 19분으로 단축된다.

〈GTX노선 수혜지역 내 주요분양 예정단지〉

사업명	위치	총세대 (일반분양)	전용면적 (㎡)	건설사	분양 시기
안양호계 두산위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661-1번지	855 (414)	36~84	두산건설	분양중
더샵 파크에비뉴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224-24번지 일원	420 (317)	39~97	포스코건설	12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	836	128~162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12월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A14블록	710	59~84	대우건설	1월

*위 내용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료=부동산114, 각 사

두산건설은 GTX 수혜가 예상되는 곳에서 아파트를 선보인다. 두산건설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서 분양 중인 '안양호계 두산위브' 36~84㎡ 855가구 중 414가구를 분양한다.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이 단지에서 직선거리로 1㎞ 이내에 위치해 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첫 분양단지다.

포스코건설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구역 재개발 지역에 들어서는 '더샵 파크에비뉴' 420가구 중 39~97㎡31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나들목(IC)이 차량으로 10분 거리다. 또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에는 서울 청량리, 삼성동 등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들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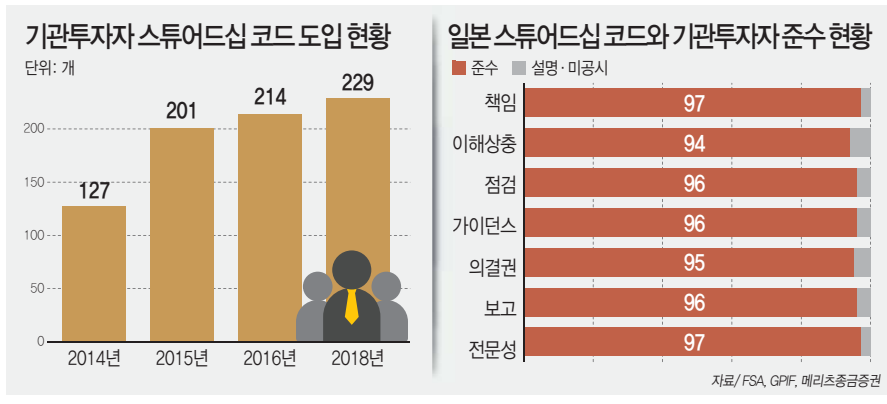
/이규성 기자 peace@

트렌드로 자리잡은 '책임투자'… 수익률 증명은 아직

Why?

〈2〉책임투자와 수익률

스튜어드십코드 등 책임투자 추세
수익률 미비, 정치적 수단 등 지적



글로벌 연기금의 책임투자 확대가 큰 물결을 타고 있다. 해외 주요국을 비롯해 국내 기관투자가도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기관수탁자책임)에 가입하는 등 트렌드에 발을 맞추는 추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책임투자의 성과가 증명되지 않은데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률이 희생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하면서 책임투자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책임투자는 글로벌 연기금 사이에서 이미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10년 영국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 도입한 이후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등 10여개 국가가 도입해 운용중이다.

메리츠종금증권 정다이 애널리스트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보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2년 먼저 도입한 일본은 20년 동안 침체된 일본 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다. 2014년 5월 30일 일본 국민연금(GPIF)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권 전체로 확산, 올해 7월 기준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이 229개까지 확대됐다.

국내서도 이 같은 트렌드에 발맞춰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고, 책임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피투자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다만 아직 책임투자 자체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한국투자증권의 송승연 연구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와 수익률 전쟁' 보고서를 통해 "아직 글로벌 연기금이 공유하는 책임투자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데다 책임투자의 성과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건스탠리 산하 책임투자 연구소에 따르면 118개의 연기금, 기관, 국부펀드, 보험사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관 중 24%는 책임투자로 인한 수익률 개선이 숫자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송 연구원은 "CalPERS나 CalSTRS 등 일부 연기금은 지배구조 및 책임투자 원칙(Governance & Sustainability Principles)에서 투자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투자 철회보다 건설적인 개입을 선호한다고 명시했다"며 "투자 철회로 인한 수익률 하락 역시 '수익률 극대화'라는 수탁자의 책임에 어긋난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책임투자에 대해 '수익자들의 연금을 담보로 한 정치적인 목적 달성'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말 ACCF(American Council for Capital Formation)라는 씽크탱크는 '포인트 오프 노리턴즈(Point of No Returns)'라는 보고서를 통해 CalPERS의 책임투자 정책으로 인해 수익률이 저하돼 수탁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연기금과 국부펀드는 저금리 환경 속에서 리스크와 수익률 관리 가운데 딜레마를 겪어 왔다"며 "공적기금의 성격 상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동시에 목표수익률을 달성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부나 정치권의 외풍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캐나다공적연금(CPP)의 경우 1998년 별도의 공사인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를 세우고,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은 2008년 민간 자회사인 자산운용공사(APG)를 설립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송 연구원은 씽크탱크 보고서를 인용해 "(책임투자에 대한 정치적 목적 달성 등)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선 비정치적인 위탁운용사에 자금을 위탁해야 하고, 위탁운용사의 의결권이 의무로 하지 않는 정보 공개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적연금도 사적연금과 동일한 방법의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기업 가치 믿는다"

증시 침체기, 제약바이오사 자사주 매입 줄이어

주가 방어 효과·가치 자신감 드러내

증시 침체 속에 국내 제약·바이오사들이 잇따라 자사주 매입해 주가 방어에 나섰다. 주주 가치를 지킴과 동시에 기업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전략이다.

12일 한미약품그룹의 계열사인 제이브이엠이 주가 안정을 위해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이브이엠이 매입하는 자사주 수량은 17만1821주이며, 매입 금액은 50억원에 달한다. 취득 예상 기간은 이날 부터 내년 3월 11일까지이다. 전일 기준 제이브이엠 주가는 2만7800원으로, 연중 최고가 대비 반토막이 난 상태다. 제이브이엠은 장기적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이브이엠측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및 국내 영업 등을 한미약품그룹과 함께 공격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직전 분기는 태풍 등 영향으로 일부 해외 수출 물량 선적이 연기되는 등 일시적 요인이 반영됐지만 올 4분기와 내년에는 지속적인 안정적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려제약은 전일 자사주 2만주를 장내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취득예정금액은 1억3960만원으로, 취득예상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019년 3월 11일까지다.

회사 측은 "주가안정을 통한 주식가치 제고 및 퇴직자 인센티브 지급 목적을 위해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광동제약은 지난 6일 자기주식 100만주를 69억6000만 원에 취득하기로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취득예상기간은 내년 3월 6일까지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역시 지난 달, 자사주 취득을 결정하고 내년 2월까지를 기한으로 자사주 매입을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은 총 45만 주, 978억7500만원 규모를 매입한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취득 예정 주식은 987억 원 규모로 총 155만주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연내 자사주 매입과 함께 약 495억 원 규모의 우리 사주 매입도 동시 진행할 예정"이라며 "회사의 본질적 가치 및 성장성에 대한 확신은 변함없으며 앞으로도 기업가치 보존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책임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약사 오너들도 자사주 매입에 동참했다.

휴온스글로벌의 윤성태 부회장은 지난 4일 자회사인 휴메딕스 주식 5869주를 장내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윤 부회장이 가진 휴메딕스 지분율은 0.35%로 증가했다.

윤 부회장은 "휴메딕스가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함에 따라, 경영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휴메딕스의 기업 가치를 보존하고 주주가치 제고 및 저평가된 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주식 취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역시 지난 10월 자사주 205주를 장내 매수한 데 이어, 지난 11월에도 549주를 추가 매입한 바 있다. 투입 비용은 총 3억5000만원 규모다.

/이세경 기자 seilee@

퇴직연금 제안할 때 비교 수익률 기재해야

금감원 제안서·보고서 표준서식 마련

앞으로는 퇴직연금 상품제안서에 상품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벤치마크 수익률과 정기예금 평균금리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금자보호 여부나 원금 손실발생 가능성 등 가입자의 투자 유의사항도 명문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퇴직연금 '상품제안서' 및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운용상품 선정을 위해 상품제안서를, 적립금 운용현황 및 성과 평가를 위해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를 각각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크고,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정보 제공이 미흡해 가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먼저 상품제안서는 원리금보장형·실적배당형 상품을 선택할 경우 가입자의 투자 유의사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예금자보호 여부, 상품제공기관의 신용등급, 중도해지시 불이익, 물량제한, 투자원금 손실발생 가능성 등이다.

특히 운용상품 결정권,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 및 추가상품 편입(line-up) 요구권이 가입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실질수익률 계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물가상승률, 정기예금 평균금리 등 투자판단 요소 제공하고, 장기 수익률을 우선 기재한다. 상품의 과거 성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벤치마크 수익률도 알려야 한다.

투자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펀드별 총보수·비용 비율과 함께 가입금액 백만원 당 얼마인지 금액도 기재해야 한다.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는 적립금 운용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추이, 상품별 적립금 비중 및 부담금 투자비율 등을 그래프로 제시해야 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가계대출 증가 추이 및 잔액〉 (기간 중 말잔 증감, 조원)

	2016		2017		2018				18.11월말 잔액
	연중	11월	연중	11월	연중	9월	10월	11월	
은행 가계대출[1)2)]	68.8	8.8	58.9	6.7	55.4	5.1	7.8	6.7	822.2
(주택담보대출)[2)3)]	55.8	6.1	37.2	3.0	32.9	3.7	3.5	4.8	603.0
(기타대출)[4)]	12.9	2.7	21.6	3.7	22.2	1.4	4.2	1.9	218.0

주:1)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 3) 주택관련대출 포함. 4)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 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자료=한국은행

은행 가계대출 6.7조↑… 주담대 증가세 여전

이달부터 주담대 감소 현상 나타날 것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8조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18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전월에 비해 6조7000억원 증가한 82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0월 전월 대비 7조9000억원 증가한 이후 증가폭이 한풀 꺾였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603조원으로 지난달보다 4조8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증가폭은 10월 1만2000가구에서 11월 4000가구로 줄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 증가규모도 10월 1만4000가구에서 11월 1만2000가구로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3~4개월 정도 시차 때문에 11월까진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다"며 "12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기타대출은 11월 1조9000억원 증가한 218조원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소비자금 결제 등 계절적 요인이 소멸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10월 4조2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축소됐다.

11월 중 은행 기업대출은 830조9000억원으로 증가폭이 10월 4조6000억원에서 11월 4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중 중소기업대출(673조9000억원)이 연말 실적평가에 대비한 은행의 대출 확대 노력으로 증가규모가 한 달 새 2조7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대기업대출(157조원)은 10월 중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으로 큰 폭 증가한 특이요인이 소멸되면서 증가폭이 1조8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줄었다.

/김희주 기자 hj89@

경부선 언양~영천 4차로 → 6차로 개통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과 경북 영천시를 잇는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이 확장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이 착공 7년 만인 12일 오후 6시에 확장(4→6차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확장 구간은 55㎞이며 2011년 12월 착공해 사업비 8940억원이 들었다.

이번 개통으로 이 구간의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68㎞에서 시속 95㎞로 빨라질 전망이다. 통행시간은 50분에서 35분으로 단축돼 울산, 경주, 영천시 등 주변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된다. 특히 이번 확장 구간은 전국에서 화물차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면 연간 약 460억원대 물류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도로 확장과 함께 주차공간이 부족해 항상 붐볐던 언양휴게소(부산방향)도 크게 넓히고 졸음쉼터 4곳을 추가 설치했다. 언양휴게소 주차가능 차량 대수는 164대에서 236대로 늘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인공지능·5G·모빌리티’ 만나 가전도 진화한다

‘CES 2019’ 키워드는

CES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삼성, QLED 등 TV 신제품 강조
LG, 인공지능·로봇 대거 소개

다음 달 8일(현지시간)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가 열린다. /CES2019 홈페이지 캡처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2019’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박람회의 주요 화두는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모빌리티(자율주행, 부품)다. 155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 예상되는 참석자 수는 약 18만2000명에 달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8일(현지시간)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는 독일 베를린의 ‘IFA’,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MWC’와 함께 세계 3대 가전·IT 전시회로 꼽힌다. CES는 가장 먼저 열려 새로운 해의 기술 트렌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내에선 전 세계적으로 가전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주요 업체로 참가해 기술력을 알린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최대 부스를 꾸려 신제품과 신기술을 대거 선보인다. QLED 8K와 마이크로LED(발광다이오드) TV 신제품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8K TV의 경우 현재 미국 시장에 85인치 모델만 출시됐지만, 삼성전자는 CES를 통해 60인치 이하나 100인치 이상의 제품을 선보이며 라인업을 확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현재는 65, 75, 82, 85인치 모델이 나온 상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CES 2019에서 삼성전자의 메인은 TV”라며 “CES 개막 전인 6일 퍼스트룩 행사를 통해 마이크로 LED와 QLED TV를 새롭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LED TV의 경우 기존 B2B(기업간 거래) 중심이었던 ‘더 월’에서 가정용에 적합한 규격으로 조정된 신제품들을 소개해, B2C(기업-소비자간 거래)로 시장을 본격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문장 한종희 사장은 지난 7월 “현재의 더 월 제품 두께인 80㎜보다 훨씬 얇은 두께의 가정용 브랜드 더 월 럭셔리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분야에선 폴더블 폰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또한 미국 하만과 협력해 선보일 자율주행 솔루션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작년 CES에서는 하만과 공동 개발한 사물인터넷 기술 ‘디지털 콕핏’을 공개했었다.

LG전자는 AI와 로봇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선 CES 개막 전인 7일 LG전자 CTO(최고기술책임자) 박일평 사장이 CES 2019에서 개막 기조연설자로 나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인공지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제품 중심의 제조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포괄하는 라이프스타일 회사로 변모하는 LG전자가 고객의 삶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보여줄 계획이다.

진화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브랜드의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최근 이뤄진 정기인사에서 CEO 직속 기구로 로봇사업센터와 자율주행사업태스크를 신설했다. 이에 대한 부분도 CES에서 소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 IFA에서 LG전자는 LG 클로이 수트봇을 비롯해 안내용·청소용·잔디깎이용·홈용·서빙용·포터용·쇼핑카트용 로봇 등을 선보인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LG 구광모 회장은 CES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3개월 만에 순유입

3억6000만달러 순유입 기록

11월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이 3개월 만에 순유입세로 전환됐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18년 1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금은 3억6000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9월(-14억1000만달러), 10월(-42억7000만달러) 두 달 연속 유출되던 외국인의 증권투자금이 3개월 만에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외국인 채권자금은 공공자금 중심으로 3억7000만달러 순유입됐다. 올해 10월까지 125억6000만달러가 들어왔다.

주식자금은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으로 순유출 규모가 1000만달러로 축소됐다. 10월에만 40억3000만달러가 빠져나갔다. 1~10월 누적으로는 -57억9000만달러다.

원·달러 환율은 10월 말 1139.6원으로 올랐다가 11월 말에는 1121.2원으로 떨어졌다. 이달 10일 기준으로는 1126.5원이다. 미·중 긴장 완화와 미 금리인상 기대 약화 등으로 하락하다가 미중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조짐이 보이자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 대비 원화가치는 1.2% 상승했고 중국 위안화는 0.9% 올랐다.

주요국 환율을 보면 미 달러화(DXY지수)는 0.1%, 유로화는 0.3% 상승했지만 일본 엔화와 영국 파운드화는 각각 0.4%, 1.6% 떨어졌다.

11월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전일(4.8원) 대비 3.5원(0.31%)으로 줄었다. 은행 간 외환거래 규모는 하루 평균 226억4000만달러로 전월보다 6억7000만달러 줄었다.

/김희주 기자

(왼쪽부터) 엘리트의 ‘50주년 이벤트’, 스마트학생복의 연간 이벤트 ‘School of King 시즌 2’, 엘리트가 협찬 지원한 웹드라마 ‘하지말라면 더하고 19’. /각 사

‘손 안의 Z세대’… 교복 마케팅도 SNS로

〈1995년 이후 출생자 중 19세 미만의 청소년〉

평균 3개 이상 SNS 공식채널 운영
스마트 SNS로 양방향 소통 이벤트
엘리트 웹툰·웹드라마에 교복 협찬

교복업체들의 ‘SNS(Social Network Service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마케팅이 갈 수록 진화하고 있다. 아이돌 모델 하나로 경쟁하던 시대는 지난 지 오래다. 모바일에 최적화된 1318 청소년들을 사로잡기 위해선 ‘참신한 콘텐츠’가 필수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학생복, 엘리트학생복,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국내 대표 교복 업체들은 최소 3개 이상의 공식 SNS 채널을 운영 중이다. 스마트의 경우,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 총 5개 계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쿨룩스도 4개 공식 계정을 갖고 있다.

교복업계가 SNS 마케팅에 투자하는 이유는 주 타깃층인 10대 청소년들이 SNS 사용에 매우 적극적인 세대이기 때문이다. 일명 ‘Z세대’(1995년 이후 출생자 중 19세 미만의 청소년)로 불리는 이들은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 ‘디지털 네이티브(원주민)’ 세대로도 불린다.

스쿨룩스 관계자는 “1318 세대는 어려서부터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접하며 SNS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특성이 강하다”고 말했다.

교복 마케팅의 주 무대가 SNS로 옮겨지면서 소통 콘텐츠나 마케팅 방향도 자연히 달라졌다. 유명 아이돌 그룹 모델을 기용하는 전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과거만 못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스마트의 전속 모델은 방탄소년단(BTS)이다. 엘리트는 NCT, 아이비는 워너원, 스쿨룩스는 아이즈원과 손 잡았다. 각 업체들은 과거보다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아이돌 모델의 존재 자체가 교복 구매의 기준이 되던 때는 지났기 때문이다.

팬사인회 등에 국한돼 있던 아이돌 마케팅이 SNS 물결에 탑승하면서 한층 가볍고, 재미있는 콘텐츠 및 이벤트로 변화했다. 최근의 이벤트를 보면, 엘리트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실시한 ‘루카스 산타를 찾아라’가 있다.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이 이벤트는 크리스마스 시즌 영상을 보고 댓글로 정답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홍보부터 참여, 발표까지 모두 SNS를 기반으로 해 10대들의 접근성과 흥미를 높인 사례다.

또 스마트는 지난 4월부터 매달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모델 방탄소년단의 영상 미션을 공개하고, 본인의 성공 영상을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해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 이벤트 ‘아무기록 대잔치’를 진행 중이다.

이렇듯 교복업체들이 이벤트의 전 과정을 SNS에서 진행하는 전용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됐다. 엘리트의 경우, 최근 50주년 이벤트를 SNS를 통해 진행했다. 10년 전인 40주년 당시만 해도 인사동에 전시회를 열고 홈페이지를 통해 추억의 교복과 관련된 사연 이벤트를 받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엘리트 관계자는 “오프라인 마케팅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마케팅이 SNS를 통해 이뤄진다고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 변화는 또 다른 부분에서도 포착된다. TV 드라마를 넘어 웹드라마 협찬이 이어지고 있는 것. 여기엔 웹툰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10대들이 웹드라마와 웹툰을 즐겨보기 때문.

엘리트가 최근 10대 학생 19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웹툰&웹드라마 구독 실태·경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9%가 웹드라마나 웹툰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6%의 학생들은 인터넷과 모바일로 즐겨 보는 컨텐츠 중 웹드라마와 웹툰의 비중이 30%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에 발맞춰 교복 업체들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웹드라마나 웹툰을 공략하고 있다. 스마트는 2016년 3월 웹드라마 ‘클릭 유어 하트’, 2017년 7월 ‘아이엠’, 올해 10월 ‘두드림’에 교복을 협찬했다. 또 엘리트는 올해 웹드라마 ‘에이틴’을 협찬했고, 과거에는 웹툰 ‘야매토끼’, ‘패션왕’과 콜라보 마케팅을 진행했다.

교복업계가 SNS 마케팅을 선호하는 이유는 실 착용자인 10대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가벼운 콘텐츠로 이벤트 등을 보다 자주,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 부담도 적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 교복 학생들이 세대들이 TV와 컴퓨터에 익숙한 세대였다면, 현재 10대은 모바일에 익숙한 Z세대들로 학생들과 가장 잘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SNS 분야”라며 “특히, 최근 청소년들의 유튜브 등 영상을 활용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맞춘 SNS 마케팅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내 카드 한눈에’제공 정보〉

/자료=금융감독원

구분		주요 내용
카드정보 조회	카드사별 카드내역	보유카드 개수, 이용한도
	카드정보	상품명, 카드번호, 종류(신용/체크/가족), 휴면카드 여부
	결제예정금액	결제일, 결제계좌, 결제예정금액, 연체금액
	최근이용대금	결제일, 결제계좌, 명세서작성기준일, 이용대금, 연체금액
포인트정보 조회		카드사별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2개월 후)

신용카드 사용내역·포인트·금액 ‘한 눈에’

금감원 ‘내 카드 한눈에’ 실시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자신이 보유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어카운트인포’에서 본인인증(공인인증서+휴대폰 인증)을 거치면 신용카드 보유 개수, 결제 예정금액, 사용금액, 포인트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비씨,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씨티은행, SC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15개 카드사의 내역이 제공된다.

제공 정보는 카드 정보와 포인트 정보로 구분된다. 카드 정보 조회로 보유 카드 개수, 이용한도, 휴면카드 여부, 결제일, 연체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포인트 정보에서는 카드사별 잔여 포인트와 소멸예정 포인트(2개월 후)를 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 발생,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잊고 있던 휴면카드와 포인트를 조회해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정리하고 포인트 활용을 촉진해 합리적인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www.pdna.co.kr

It's Magic!

P+DNA

"다시 어린 피부"
크리스마스엔 DNA 마법을 선물하세요

바다 송어의 DNA에너지를 담은 피디엔에이 크림&세럼
바다 송어의 물찬 보습, 원초적 탄력으로 메마르고 지친 피부를 지켜주세요. 바다 송어에서 추출한 소듐 DNA, 주름개선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신 등 풍부한 피부보호 성분이 안티에이징을 동시에 관리해줍니다.

겨울에도 눈부신 봄 피부,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 본 적 언제였나요?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던 시간, 아름답게 빛나던 그때의 얼굴을 다시 한 번 선물해보세요.
아름다운 변화, P+DNA 크림과 세럼이 함께 합니다.

주름개선기능성 유수분밸런스개선 피부탄력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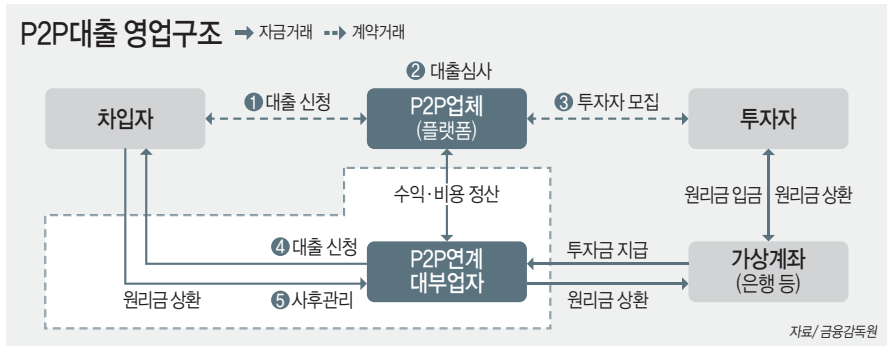
P+DNA MFDS 식약처 기능성 보고 완료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구입문의 고객상담센터 070-4870-0708

옥석가리기 시작… 대형社 위주로 재편된다

P2P 가이드라인 개정

부동산대출 관련 공시의무 확대
거액운용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충원 불가피 소형업체만 '울상'



올해 사기 횡령 등으로 위기를 맞았던 P2P금융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이 P2P대출업체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P2P가이드라인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법제화를 통해 금융당국의 감독권 안으로 편입될 예정이어서 옥석가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개인 신용 업체 간, 대형-중소형 업체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출업체 공시 강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바빠진 쪽은 부동산 대출 업체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부동산 대출업체의 정보공시 의무를 강화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P2P 연계 대부업체는 지난 9월 말 기준 193개사로 대출 잔액만 1조7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161개 회사는 PF·부동산 담보 대출 업체로 전체 대출 잔액 1조907억원 중 65.1%인 7105억원을 차지했다. 연체율도 신용대출보다는 PF대출 등 상대적으로 거액인 부동산 담보대출이 높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부동산대출 관련 공시의무를 대폭 확대했다. 주요내용은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전반, 차주·시행사·시공사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관리체계, 상환계획 등 PF대출 공시항목 확대 ▲ 부동산 물건 존재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 PF대출 주요사항에 대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검토 및 검토내용 공시 ▲ 부동산 P2P대출 상품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 등이다. 거액이 운용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대출전문업체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시행사나 시공사, 법률관계 입증서류 등은 투자자들에게만 공시했던 부분이었는데 공통 공시항목에 들어가면서 플랫폼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부동산에는 적었던 투자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대형-중소형 업체 '희비'

대형 중소형 업체간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불건전 고위험 영업을 제한하고 업체의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면서 인력충원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금감원이 발표한 P2P실태조사에 따르면 P2P업체의 임직원 수는 평균 10.5명으로 대출담당 직원 수는 평균 3.7명이었다.

한 P2P업체 대표는 "회사 전체 임직원 수가 15명이다. 정부에서 제시한 공시를 다 맞춰 실시하기엔 인원이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출상환 원리금은 임의로 관리해 왔는데, 외주를 두고 맡겨야 해 비용문제가 상당할 것 같다. 내년이라고 해봐야 2-3주정도여서 예정된 상품 판매도 미룬 상태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형업체는 중소형업체에 비해 여유로운 모습이다. P2P 대형업체로 손꼽히는 렌딧의 직원 수는 총 75명으로 플랫폼 운영관련 인원은 57명이다. 테라펀딩의 직원수도 100명에 달한다. P2P업체 평균 직원 수보다 7~10배 많은 수준이다. 렌딧관계자는 "대출심사업무의 경우 시스템 개발을 통해 자동화로 분류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공시의무는 무난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옥석가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P2P업계 관계자는 "업체가 작을수록 투자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시스템 개발이나 인력충원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내년 법제화가 되면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반려동물 고령화시대, 관리방법은?

건강검진·전용사료·방한의류와 함께해요

"우리 행복이는 15년 동안 잘살다가 지난 해에 저 세상으로 갔는데, 얘는 눈도 초롱초롱한 게 더 오래 살겠네요."

반려동물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반려동물을 단순히 '키우는 동물'이 아닌, 함께 사는 '가족'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면서 관심도가 크게 증가했고, 최근 수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반려동물 수명도 늘어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8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기간은 평균 8.9년이며 양육 기간이 길어지면서 반려동물의 연령도 높아져 반려견의 10.6%가 노령견의 기준인 10세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소비를 아끼지 않는 '펫팸족(Pet+Family)'들의 관심이 점차 노령견, 노령묘 시장으로 이동중이다.

반려견 비만검사 /농촌진흥청

최근에는 반려동물 건강검진을 시켜주는 보호자도 크게 늘었다.

노령견의 경우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여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검사를 진행해보면 오래 전부터 신체 내에서 특정 변화가 진행돼 병적인 상태로 발전, 내원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건강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필수다..

생애전환기부터는 특정 질환의 조기발견을 목표로 1년에 1회 이상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보통 강아지의 1년은 사람의 7년정도이기 때문에 7년에 1회 검사를 실시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반려견도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퇴하고, 심할 경우 인지기능 장애로 이어진다. 이러한 경우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평소 식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슬레 퓨리나는 7세 이상 노령견의 인지능력 개선을 위한 '프로플랜 브라이트 마인드'를 출시해 반려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프로플랜 브라이트 마인드(가운데 사진)'는 네슬레의 혁신적인 영양 배합으로 정제한 식물성 오일인 MCT오일을 함유하고 있어 7세 이상 반려견에게 30일 이상 줄 경우, 반려견의 주의력 향상과 총명함을 증진하는데 뛰어난 도움을 준다. 또한, 천연 항산화제가 풍부해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

네슬레 퓨리나 관계자는 "기존 국내 노령견 사료 대부분은 치아나 관절 건강 등 신체 기능 향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네슬레 퓨리나의 프로플랜 브라이트 마인드는 국내 유일 노령견의 인지능력 개선에 특화된 제품"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은 사람에 비해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월동준비에 신경써야 한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생각한 영양제는 물론, 보온제품과 패션의류가 인기를 끌고 있다.

12일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옥션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11월 12일부터 12월 11일)반려동물 방한용품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고양이 침낭

강아지 방한의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반영률 '전국 최하위'

0.23%… 전국 평균 3분의 1수준
내년도 예산 올해보다 4조원 늘어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강조해온 시민 참여 직접 민주주의가 허울 좋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 전체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은 평균 0.23%이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0.6%)의 3분의 1 수준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행정활동에 시민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다. 재정분야에서 주민자치 이념을 구현,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이 직접 원하는 사업을 제안하면 위원회가 검토·심사한다. 시민 투표로 사업을 선정하고, 시장이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은 지난 2013년 0.28%에서 2014년 0.22%로 감소했다. 2015년 0.23%로 전년도에 비해 0.01%포인트 소폭 증가했다가 2016년 0.22%, 2017년 0.21%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자가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시

소병훈 의원은 "서울시의 지난해 예산이 32조원이고, 주민참여예산 반영금액은 670억원이다"며 "전체 예산이 시의 절반을 조금 넘는 충남의 경우 2017년 총 예산이 12조원, 주민참여예산 반영금액이 2500억원으로 서울의 3.7배였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재정규모가 반밖에 안 되는 다른 시·도보다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작은 것은 시장의 의지가 더 부족하기 때문인 거냐"며 "지난해 기준으로 시보다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이 낮은 곳은 대구, 광주, 대전 세 곳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타 광역단체와 비교한 결과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은 2013년~2014년 꼴찌에서 3번째, 2015~2017년 뒤에서 4번째였다. 지난 5년 동안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른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주민참여예산 시행 방법, 산정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면서 "시는 주민참여 규모와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시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647억원으로 올해(592억5000만원)보다 54억5000만원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시 재정은 31조8141억원에서 35조7843억원으로 약 4조원 증가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사회적금융, 절차 준수하면 부실나도 은행원 면책

은행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해주거나 투자할 때 정성적인 평가를 하거나 미래가치를 감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령 대출이나 투자가 부실이 나더라도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을 준수했다면 면책을 받는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이달 중으로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은행권이 투자·융자·보증 등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적금융의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범규준은 사회적금융의 방법으로 지분 투자, 여신 지원, 수수료 감면, 비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예시로 들었다.

지분 투자는 직접·간접투자 모두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본부에서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직접 투자는 목표수익률을 조달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한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목표수익률이 조달원가에 미달하더라도 대상 기업으로부터 현재와 장래의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여신 심사 시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면서 해당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정보 등을 고려한 정성 평가를 실시해 여신 취급 여부, 한도, 금리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2022년까지 러시아·몽골에 환경산업 수출 1조 달성"

북방경제협력委,신북방정책 점검

몽골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완료
나진항 개발 등 국제 제재 걸림돌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 특별고문, 김민기 민간위원, 권 위원장, 이해정 민간위원. /연합뉴스

정부가 러시아와 몽골 등 북방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환경산업 수출액 1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기자재 수출 1억달러 및 식량 100만톤 확보와 한-유라시아 협력펀드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권구훈 신임 위원장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고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16대 추진과제와 56개 세부과제를 중간 점검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가장 먼저 완료된 세부과제는 신성장 동력 분야의 몽골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이 48억원을 들여 날라흐 지역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했다. 이 타운은 몽골지역 광해(광물개발에 따른 오염)를 복구하고 풍력·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한반도 물류망과 전력망을 북방지역과 연계하는 방안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3월과 8월 각각 중국횡단철도와 러시아 횡단철도 블록트레인 운행을 개시했다. 블록트레인은 열차 1량을 전세 계약해 기업 부품을 직통 수송하는 방식이다.

남북철도를 잇기 위해 경의선 전철화(문산~도라산) 사업을 착공하고 남북철도 공동조사도 진행 중이다.

해운·조선시장 개척을 위해 러시아 슬라비얀카 항만 개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북극항로 이용을 위한 한·중·일·러 공동연구에도 착수한 상태다.

반면, 나진항 복합개발과 광역두만개발계획 등 소다자협력 과제는 국제 제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나온 중점과제과 함께 내년부터 북방지역으로의 환경산업과 농·수산업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인 목표는 2022년까지 환경산업 수출 규모를 1조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국내 종량제·분리배출 정책과 시스템이 발달했고 상하수도·폐기물 인프라 기술이 우수한 만큼 이를 북방지역 국가에 전파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러시아는 하루 폐기물 발생량이 세계 7위 수준이지만, 재활용률은 7%에 그쳐 폐기물 관련 협력이 가능하다. 몽골의 경우 국내 대기 질 관리·모니터링 시스템을 공유하고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농·수산업과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농기자재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하고 식량 100만톤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농기업 진출 지역을 기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와 흑해로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미콜라이프항에 곡물 수출터미널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과 유라시안 간 협력펀드도 조성된다. 정부는 이미 내년도 예산에 한-유라시안 협력펀드 1차년도분 50억원을 반영했고 2022년까지 금융기관 등과 함께 총 1억 달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인프라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북방 지역 투자개발형 사업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현재 신북방정책은 남북관계 변화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성이 큰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며 "2020년까지 한국과 러시아 교역액 300억달러, 인적교류 10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GP 20곳 시험철수… 남북 상호검증 완료

〈감시초소〉

軍, 65년만에 MDL내 오솔길 조성
양측 현장검증반, GP 철수 검증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북측검증반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 군인들이 12일 65년 만에 새로 만들어진 오솔길을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GP(감시초소)를 방문해 철수 상황을 검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시범철수 검증대상인 감시초소는 동부·중부·서부전선에 걸쳐 남북 각각 11개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시범 철수 대상 GP 각각 11개 중 10개를 완전파괴했다.

파괴되지 않은 남북 각각 1개 감시초소는 병력과 장비는 철수되지만, 원형은 보존된다. 이날 오전 11개조로 편성된 우리측 현장검증반은 북측 GP까지 연결된 오솔길을 따라 이동해 오전 9시께 MDL(군사분계선)에서 북측 인원들과 만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폭 1~2m의 오솔길은 이번 GP 시범철수 현장검증을 위해 새로 개척한 남북 통로"라며 "오늘 오전 9시께 오솔길과 군사분계선이 만나는 11개 지점에서 남북 GP 시범철수 현장검증반이 만나 북측 GP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각각 7명으로 구성된 11개조의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북측 현장검증단과 만난 곳에는 군사분계선이라고 쓰인 노란 팻말과 황색기가 설치됐다.

국방부 공동취재단이 촬영한 중부전선의 우리측 현장검증반은 방탄헬멧에 노란띠를 두르고 형광색 조끼를 입은 병력의 경호하에 북측 현장검증반과 만났다.

이는 상호 간 오인사격을 막기위한 '비밀표식'으로 과거 동해선 연결 공사 당시에도 남북 양측은 상호 간의 비표를 사용한바 있다.

군사분계선에서 약간의 담소를 나눈 양측 현장검증반은 흰색 경시줄이 설치된 오솔길을 따라 북측 GP로 이동했다.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DMZ(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경호임무는 북한 병력으로 전환됐다.

우리측 현장검증반의 북측 시범철수 GP 현장검증이 끝나면 같은 방식으로 북측 현장검증반이 군사분계선에서 남측 인원과 만나 남측 시범철수 GP 현장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검증반은 △각 GP의 화기 및 장비 △감시소를 비롯한 지상시설물과 지하 통로 및 입구차단벽 등 지하시설의 매몰·파괴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우리측 보다 더 많은 전연전단(북한 GP)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이 시범철수 후 군사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큰 군사적 손실을 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장을 소집,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관리 계획 등을 논의하는 긴급 점검회의를 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시설 사고, 무관용 원칙 따를 것"

성윤모 산업부장관, 안전관리대책

최근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과 고양 저유소 화재 등 에너지시설 사고가 잇따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련 공공기관장들을 소집했다.

성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에너지·자원 분야 31개 공공기관장, 대한송유관공사 사장과 함께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대책과 겨울철 전력수급 대비현황 등을 점검했다. 최근 사고가 이어지는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성 장관은 "공공기관별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 근본적인 사고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처방인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향후 공공기관별 이행상황을 강도 높게 점검할 것이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시설 교체투자에 대해 예산과 세제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노력을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더 이상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 때 산업부와 에너지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교도소 수감자 미성년 자녀 생계 지원

법무부, 자녀 2만여명 달해
내년부터 보호시스템 마련

법무부는 내년부터 교정시설 수감자의 미성년 자녀 생계비와 학자금 지원 등 지역사회 보호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지난 10월 자체 조사한 결과,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1만3834건(자녀수 2만1765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모 이외에 조부모, 친인척 등이 양육하는 경우가 4250건(자녀수 6636명)이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사회에서 홀로 생활하는 경우가 750가구(자녀수 120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법무부는 수용자의 자녀보호를 위해 법무부 교정위원과 사회단체, 교정공무원 직원회 등을 통해 생계지원, 자녀 학자금지원, 상담 등 보호활동을 펴왔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호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판단했다.

법무부는 우선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최초 입소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보호사항을 상세히 파악·관리할 수 있는 전산정보관리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완비해, 체계적인 수용자 자녀 정보관리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방송, 수용생활 안내, 입소교육 등을 통해 밖에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제도를 안내한다.

/이범종 기자 joker@

6·25 전사자 유해 365위 국방부, 현충원에 봉안

한국전쟁(6·25) 전몰 국군전사자 유해 365위가 1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합동 봉안됐다. 이날 국방부는 "오전 10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보훈단체 대표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합동 봉안식은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와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봉안된 365위에는 전후방 각지에서 발굴된 288위와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견된 유해 12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봉영한 64위, 지난 7월 13일 한미 상호 봉환행사를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1위가 포함됐다. /문형철 기자

농식품부, 서울·경기지역 AI 방역 강화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항원이 검출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방역 강화에 나섰다. 12월과 1월은 철새가 가장 많이 서식하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의 검출 빈도가 가장 높아 AI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실제로 2014년 이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사례를 월별로 따져보면 1월이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도 현재까지 야생철새에서 AI 항원이 나온 사례는 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건보다 다소 증가했다. 다행히 아직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찾는 겨울 철새의 이동 경로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올해 이미 95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전국 가축 방역기관에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매일 전국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중·고교 논술·수행평가 확대… 자유학년제 내후년 실시”

〈45%→50% 이상〉

서울시교육청 2019 수업혁신 방안

조희연 2기 ‘수업·평가 혁신’ 추진
‘고교학생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초등 고학년 창의·감성교육 도입

서울시교육청.

내년부터 서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서술·논술형 평가와 수행평가가 전체 평가의 50%이상으로 확대된다. 초등 교실에서는 창의지성·협력적 인성·심미적 감성 함양을, 중·고교 교실에서는 융합적 창의지성을 모토로 하는 학교 수업과 평가의 혁신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수업·평가 혁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조희연 교육감 1기에 추진한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수업방법 확산에 초점을 둔 ‘질문이 있는 교실’ 정책을 보다 심화·발전시킨 것으로, 창의지성·감성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실혁신 종합 방안이다.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교사 역량 지원을 유기적으로 설계하고, 학교급 간 단절 없는 수업과 평가 혁신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초등 3~6학년 ‘감성 교육과정’ 도입

초등학교의 경우 내년 1학기부터 3~6학년 대상 ‘협력적 창의지성·감성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창의지성 교육은 초등학교 단계에서 갖춰야 할 기초·기본 학습과 사고력은 물론, 새로움을 표현하거나 만들어 내는 교육을 의미한다. 협력적 감성 교육은 예술감성·문학감성·자연감성·시민감성을 키우는 교육이다.

이를 위해 초등 교실의 수업에 ‘협력적 프로젝트 활동’과 ‘학생 참여 선택활동’이 전면 도입된다. 협력적 프로젝트 활동은 여러 명의 학생들이 팀을 이뤄 조사와 탐구를 통해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수업이다. 또 학생이▲교과·창의적 체험활동 통합 프로젝트▲학년(급)별 창의적 교육활동▲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등 학습 내용과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했다.

교사들이 새로운 수업에 적응하도록 자문단과 현장지원단을 지원하고, ‘꿈실 포럼과 워크숍’, ‘꿈실 전문학습공동체’ 등이 운영된다. 또 협력적 창의지성·감성 교육을 지원하는 5종의 장학자료를 개발해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수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학교 이외에 3~6학년 1500학급 내외를 공모·선정해 150만 원 이내 운영비를 지원한다. 공모 신청은 학년 단위, 팀(주제) 단위, 개별(학급) 단위로 가능하고 지원되는 운영비는 자료구입비, 체험학습비, 도서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다.

◆‘나눔·성장 교실혁명 프로젝트’ 추진

중·고등학교는 나눔·성장 교실혁명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교실 수업을 통해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이 확대 운영된다. 이를 위해 중학교 자유학년제가 확대 운영되고 2020년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를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협력종합예술활동도 고등학교까지 확대 운영해 협력적 인성과 감성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고교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이 자신의 희망과 진로에 맞게 수업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교실 수업을 통해 미래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업 방식은 지식 전달을 넘어 함께 탐구하고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바뀐다. ‘협력적 독서·토론·글쓰기 교육’이 전 교과에서 운영되고, 서울형 메이커 교육을 확대해 창의성·협력·공유 능력을 함양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현안 논쟁·토론 수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의 연계를 위해 과정 중심 평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2019년도 중·고교에서 서·논술형 평가와 수행평가 합의 비율이 현행 4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된다. 중학교에서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5개 교과에서 학기당 1과목 이상 수행평가나 서·논술형 문항만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또 교사들이 상시적으로 수업과 평가, 생활지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하는 학내 수업나눔카페를 2019년 99개 중·고교에 구축하고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방안을 내년 3월 신학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2월 중 모든 초중고에서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을 운영,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평가 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11월 말 인헌고 닷새살이 직후 학교현장은 단일방정식이 아닌 복합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수업혁신이 그 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 공식임을 깨달았다”며 “이번에 발표한 혁신 방안을 계기로 배움이 설레는 학생, 가르침이 즐거운 교사, 함께 성장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올해 구직자 12번 도전해 1.2번 최종합격

인크루트, 구직자 1337명 설문

지원 횟수 줄고 최종합격률 올라

올해 구직자들의 최종합격률이 10% 수준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공동으로 올해 입사지원 경험이 있는 구직자 13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지원 횟수는 평균 12회였고, 최종 전형 합격 횟수는 1.2회였다.

구직자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차례 입사지원서를 냈고, 이 가운데 한 번 최종 관문을 통과해 최종합격률은 10%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최종합격률8%(평균 22곳 지원, 1.7곳 합격) 보다는 2%포인트 높다. 올해는 지원 횟수는 감소했지만, 최종합격률은 상승했다.

10회 미만 입사지원했다는 응답자가 72.2%로 가장 많았지만, ▲ 11~20회(13.4%) ▲ 21~30회(6.8%) ▲ 41~50회(2.8%) ▲ 51~99회(2.1%) ▲ 31~40회(1.5%) 등 100회 가까이 입사원서를 낸 구직자도 있었다.

최종 합격 횟수는 전부 탈락했다는 응답이 42.0%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1회(31.2%) ▲2회(13.6%) ▲3회(6.6%) ▲5회, 6회 이상(각 2.4%) 등이었다.

불합격 이유에 대해 ‘학점, 어학 점수 등 스펙이 좋지 않아서’(23.5%), ‘면접을 잘 못봐서’(21.1%)라고 생각하는 구직자가 많았다. 이외에도 ‘자기소개서를 못 써서’(12.3%), ‘인적성 전형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해서’(12.2%), ‘인턴, 대외활동 등 직무 관련 경험이 부족해서’(12.0%) 등의 이유가 이어졌다. /한용수 기자

하반기 취뽀 스펙은 ‘전공·인턴 경험’

사람인, 기업 341개사 설문

극심한 구직난을 뚫고 올해 하반기 취업에 성공한 신입사원의 스펙은 어느 수준일까.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스펙은 전공으로 나타났다.

12일 사람인이 올 하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 341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신입사원 스펙’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공계 선호, 외국어 실력, 인턴 경험이 당락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 신입사원 중 절반 이상인 64.8%는 최종 학력이 대졸이었고, 그 중 ‘지방 사립대’(31%) 출신이 가장 많았다. 이어 ‘수도권 소재 대학’(24.3%), ‘서울 소재 대학’(19.8%), ‘지방 거점 국립대’(17.1%), ‘SKY 등 명문대학’(4.2%), ‘해외 대학’(3.7%) 순이었다.

기업들은 평균 3.2점의 학점을 자격조건으로 제시했고, 최종 합격자 평균 학점은 이보다 다소 높은 3.4점으로 집계됐다.

토익 성적을 보유한 신입사원은 절반 이상(53.2%)이었고, 10명 중 3명은 토익스피킹 성적이 있었다. 블라인드 채용 등 스펙을 배제한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외국어능력시험 비중은 여전했다.

기업들은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스펙 1순위로 ‘전공’(28.3%)을 꼽았다. 이어 ‘인턴 경험’(13.3%), ‘인턴 외 아르바이트 경험’(12.4%), ‘보유 자격증’(9.9%), ‘대외활동 경험’(9.4%), ‘외국어 회화 능력’(4.7%), ‘학력’(3.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인성과 스펙의 평가 비중에 대해서는 57 대 43으로 인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답했다. /한용수 기자

138개 대학 입학상담 ‘한 곳에서’

대교협

15일까지 코엑스서 정시박람회

전국 138개 대학이 한 자리에 모여 2019학년도 정시모집 상담에 나선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3일~1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2019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바람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 참가 대학 수는 지난해(129개)보다 9개 대학이 늘어 최근 5년내 가장 많은 규모다.

각 대학들은 상담부스를 마련해 입학 관련 교수, 직원, 입학사정관이 참여해 지난해 전형 결과를 바탕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또 ‘일대일 대입상담관’에서는 진학 상담 경험이 풍부한 대교협 대입 상담교사단이 일대일 상담도 진행한다. 상담교사단 상담은 박람회 이후에도 대교협 ‘대입상담센터’의 전화상담 서비스(☎1600-1615)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열린 ‘2018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대학 상담부스에서 입학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박람회에서는 입학 상담 외에도 대학의 입학정보를 직접 검색해 볼 수 있는 ‘대입정보 종합자료관’ 등 다양한 특별관에서 대입 준비를 위한 각종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각 대학의 학과·전형 정보나 대학정보를 비교 검색할 수 있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 대학의 특성화정보 등 대학별 공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 사이트의 주요 서비스와 활용법을 소개하는 대입정보포털 홍보관이 운영된다.

또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홍보관’과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등에 대한 맞춤 상담받을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홍보관’도 있다.

박람회는 이 기간 중 매일 10시~17시까지 운영되고, 16시 30분까지 입장 가능하다. 입장료는 1000원이다. /한용수 기자

대학가 소식

중앙대 로스쿨

2019 검사 임용률 전국 2위

중앙대(총장 김창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 2019년 신규 검사 임용시험에서 5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합격률 10%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앙대 로스쿨은 지난해에도 정원(50명) 대비 8%의 합격률을 보인 바 있다.

올해 10%의 합격률을 기록함으로써 작년에 이어 대학별 정원대비 검사 임용률 2위를 기록했다.

중앙대 이순옥 교수(검찰준비반 지도교수)는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지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습효율이 높다”며 “검찰실무기록 특강, 모의면접, 검사 멘토링 등 앞으로도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동북아문화교류국제회의’

건국대학교는 통일인문학연구단(단장 철학과 김성민 교수)과 민간영역의 대북교류협력사업을 총괄하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홍걸)가 서울 광진구 건국대 법학관 102호와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오는 13~14일 양일간 ‘2018 동북아문화교류국제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학자들이 모여 한반도 냉전 해체와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관계를 살피고, 한반도 주변 국가와 국제적 차원의 평화 증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정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평가와 발전 방향도 모색한다.

최경희 한성대 교수

국제의류학회서 우수논문상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는 글로벌패션산업학부 패션크리에이티브디렉션트랙 최경희 교수(사진)가 최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2018 국제의류학회(ITAA) 연례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패션 교육 부문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상 논문은 ‘에코-테크 컨셉트에 기반을 둔 리디자인 패션 프로젝트: 문제해결방식(PBL)을 활용한 연구’다.

최 교수는 코넬대와 켄트주립대에서 방문교수를 역임하고 2010년 3월 한성대 교수로 부임했다. /한용수 기자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8-636호(2018.2.13)

Cigna. 라이나생명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든든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상담 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KT&G '제9회 상상실현 콘테스트' 시상식 개최

KT&G가 지난 11일 '제9회 상상실현 콘테스트'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종 심사 결과 '애드' 부문은 '기존 상상을 뒤집는 새로운 상상'을 출품한 '꿈꾸는 중' 팀, '플래닝' 부문은 '상상가게 프로젝트'를 발표한 '고송이' 팀, '스토리' 부문은 '상상이 이루어준 오직 단 하나뿐인 위로의 식탁'을 출품한 문소영 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KT&G

롯데홈쇼핑, 경단녀 일자리지원 잡 페스티벌

롯데홈쇼핑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더라움 갤러리홀에서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2018 롯데홈쇼핑 잡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롯데홈쇼핑 전성율 커뮤니케이션부문장, 롯데지주 오성수 사회공헌위원회 상무, 중앙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신현옥 소장을 비롯해 32개 롯데홈쇼핑 파트너사와 경력단절 여성 38명이 참여했다. /롯데홈쇼핑

동서식품, 육군 제21보병사단에 위문품 전달

동서식품은 지난 11일 강원도 양구군의 육군 제21보병사단 백두산 부대를 방문해 4300만원 상당의 기부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서식품은 추운 날씨 속에서 국토와 국민의 안전 수호를 위해 고생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3000만원의 기부금과 맥심 커피믹스, 오레오 비스킷 등 등 13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전달했다. /동서식품

삼표 '정인욱학술장학재단' 포천 학생들에 장학금

삼표그룹은 비영리재단인 '정인욱 학술장학재단'이 경기 포천지역의 고등학생, 대학생 등 총 36명에게 장학금 2600만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인욱 학술장학재단은 1993년 설립한 이후 매년 200여 명의 중·고·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5000명 가량이 혜택을 받았다. 재단 관계자가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삼표그룹

CJ헬로, 23개 지역서 한달간 릴레이 김장봉사

CJ헬로는 한 달 간 지역민과 함께 릴레이 김장봉사축제를 펼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CJ헬로의 전국 23개 사회공헌캠프는 지난달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차례로 김장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김장봉사에는 임직원 700명과 지역민 600명, 총 1300명이 참여해 김치 1만 포기(12톤)를 담갔다. 또 완성된 김장김치를 지역 내 홀몸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 지역 소외계층 7400여 가구에 배달했다. /CJ헬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

진 성 오 소장의
심 리 카 페

과거의 상처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아니, 모든 인간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만들어진 어떤 습관으로 인해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외상 혹은 트라우마(trauma)라고 한다. 트라우마라는 말은 그리스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는데 '뚫다'라는 의미라고 한다.

인간이 경험하는 트라우마는 아주 다양하다.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도 우리의 영혼을 뚫는다. 이러한 트라우마 중 단연코 사람이 사람에게 가하는 트라우마는 영혼을 뚫어버려, 그 상처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인 것처럼 만든다. 마치 상처에 그 사람이 기생하는 듯한 고통을 주는 것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성폭력, 타인으로부터의 멸시와 학대, 배신과 버림받음 등은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의 가치를 마치 쓰레기로 버려지는 포장지보다도 못하게 느끼게 만들고, 산다는 것의 의미를 산산 조각내도록 한다. 그런 고통으로 영혼에 구멍이 존재하는 사람을 지켜본다는 것은 지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역시 트라우마의 고통을 경험하도록 한다.

이렇게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의 증상을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라고 한다. 아이러니 하게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적절하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망가져가서 정신과 환자로 분류되어 이해 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 월남이라는 전쟁터에서의 참전 경험이 있는 군인들이라는 공통점을 궁금해한 연구자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일 밤 전우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껴야 했고, 고통스러운 전쟁의 경험이 주는 신체적 긴장과 정신적 압박감으로 무사히 살아 남아 돌아온 일상의 사소한 곳에서는 어떤 좋은 것도 느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작은 행복이나 사소한 감각이 주는 안정감을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영혼의 공허가 생겨 변해 버린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인류의 역사에서 항상 반복되어 되풀이 되었던 죽음과 살육의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어두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들을 언제든 삼켜 버릴 것처럼 웅크리고 있는 트라우마라는 악마와 싸워야 하는 다른 전쟁이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다. 월남의 전쟁 영웅들이 트라우마라는 괴물과 싸우며 고통 받고 있었던 것이었다.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악마를 이길 수 없는 것일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 오프라 윈프리는 어린 아동이었을 때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이었다. 넬슨 만델라는 평생을 감옥에서 지냈던 사람이다. 교통사고로 얼굴의 피부 이식을 몇 번 씩 한 이지선씨도 있다. 그들이 경험한 고통은 어쩌면 월남에 참전한 군인들의 고통 못지 않는 고통이다. 또, 월남에서 포로로 생활하다 돌아와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참전의 고통을 삶의 성숙으로 변화시킨 참전 용사도 있다. 물론, 모두가 이러한 트라우마를 견뎌내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수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같은 경험 이후에 오히려 더 성장하는 놀라운 기적같은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마치 독일군의 포로 수용소에서 몇 년을 버티고 살아남은 빅터 플랭크 같은 심리학자도 있다. 세상이 자신의 육신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굴욕을 주고 고통을 주어도 마음에 존재하는 '자기'라는 자유 만큼은 뺏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도, 여전히 트라우마와의 싸움은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쉽지 않은 싸움을 승리로 이끈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삶을 성취적으로 살아간다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여전히 타인으로부터의 폭력과 자연이 주는 좌절 속에서도 패배자가 아닌 희망의 생존자로 남아 있는 것일게다.

/당신의 마음연구소장

LG디스플레이 파주 저소득가정에 김치 3500포기 전달

한상범 부회장 등 220여명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진행

LG디스플레이는 소외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한상범 부회장과 권동섭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220여명은 경기도 파주사업장에서 7000㎏에 달하는 3500포기의 김치를 담아 파주지역 저소득 가정 700가구에 전달했다.

올해로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김장 나눔 행사는 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매년 배추, 무,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를 파주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인 '교남어유지동산'에서 구입해 지역 사회와 상생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 마음 봉사'라는 테마로 진행했다. 누가 담아도 일정한 맛의 김치를 전달하기 위해 아워홈 조리사들을 초청, 김장 교육 후 조별로 조리사가 함께 진행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12일 CEO 한상범 부회장(왼쪽 다섯번째)과 임직원들이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서 김장을 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인사

◆**NH농협금융지주계열사** ◇ 농협금융지주 부장급 인사 △ 기획조정부장 김익수 △ 사업전략부장 정종관 △ 글로벌전략부장 이기현 △ 디지털전략부장 김현우 ◇ 농협은행 부장급 인사 △ 준법감시부장 권기수 △ 감사부장 김성균 △ 종합기획부장 장승현 △ 마케팅전략부장 김홍범 △ 개인고객부장 최정훈 △ WM연금부장 신용인 △ 기업고객부장 강대진 △ 외환사업부장 김묘영 △ 공공금융부장 금동명 △ 대손보전기금부장 박찬오 △ 인사부장 정재호 △ 여신기획부장 조경성 △ 리스크관리부장 이재선 △ 신용감리부장 황석웅 △ IT기획부장 허병희 △ IT시스템부장 황재현 △ IT금융부장 위길량 △ IT디지털금융부장 박수기 △ IT경영정보부장 신강수 △ 디지털전략부장 강태영 △ 디지털채널부장 김남열 △ 디지털마케팅부장 허옥남 △ 신탁부장 장기요 △ 자금부장 최명규 △ 소비자보호부장 강문철 △ 글로벌사업부장 김용기 △ 카드기획부장 박병규 △ 카드회원사업부장 김기연 △ 카드마케팅부장 이수경 △ 카드신용관리부장 반채운 △ NH멤버스사업부장 박한 △ 업무지원센터장 이연호 △ 고객행복센터장 최명호 △ 수탁업무센터장 이석용 △ 자금운용지원단장 이재충 ◇ 농협생명 부장급 인사 △ 감사실장 김정식 △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김태호 △ 고객지원부장 장종환 △ 상품개발부장 권태호 △ IT지원부장 박금현 △ 마케팅부장 류영수 △ 농축협사업부장 여운철 △ 신채널사업부장 주경돈 △ 경영기획부장 전용범 △ 투자전략부장 박정철 △ 투자운용부 박세준 ◇ 농협손해보험 부장급 인사 △ 위험관리책임자 문연우 △ 농업보험부장 유지영 △ 자산운용부장 서현성 △ IT지원부장 마동필 △ 지급심사부장 최정진 △ 마케팅전략부장 임정현 △ 농축협사업부장 서윤종 △ 법인영업부장 송춘수

◆**특허청** ◇ 국장급 전보 △ 산업재산정책국장 박호형 △ 특허심사2국장 류동현 △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민희 △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용선

◆**한미글로벌** ◇ 상무 △ 박서영 △ 백홍철 △ 심재진 △ 이국헌 △ 정찬엽 ◇ 상무보 △ 박상혁 △ 송경호 △ 유재준 △ 정일균 △ 조진곤

◆**kbc광주방송** △ 전무이사 김영락 △ 이사 임광현(경영국장)

부음

▲ 조국현(한국금융신문 회장) 씨 별세, 조경숙 씨 남편상, 한주(영등포 김안과병원 교수)·한석(용인 청담피부과 원장) 씨 부친상, 최유란(유한킴벌리 팀장)·박소연 씨 시부상, 윤서·상훈·서영·민서 조부상 = 12일 오전 7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 02-3010-2233

▲조길신 씨 별세, 조임중(유한킴벌리 부장)·조현철(대우디섹 부장) 씨 부친상, 홍순욱(한국거래소 상무)·임재경(KT 부장) 씨 장인상 = 11일, 전남 강진의료원, 발인 14일 ☎ 061-430-1104

▲이기동씨 별세, 이용환(SK텔레콤 변화추진실장)·용문·용경씨 부친상, 전상철(사업)씨 장인상, 남영경씨 시부상 = 11일,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402호(13일 이후 501호), 발인 14일 오전 7시 30분. ☎ 053-958-9000

롯데마트 4세대 미래형 쇼핑공간 '스마트스토어 금천점' 오픈

"QR코드 찍으면 퀵배송"… 시식코너 대신 3D 홀로그램

인공지능으로 쇼핑 편의성 극대화
3D 홀로그램·전자가격 표시기 등
매장 효율성 높일 최첨단 기술 적용

롯데마트가 정체되어 있는 오프라인 대형마트 시장의 전환점을 제시한다. 그 주인공은 오는 13일 대형마트 격전지인 금천구에 오픈하는 '4세대 미래형 종합 쇼핑공간'인 '스마트스토어 금천점'이다.

롯데그룹이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해 왔던 '옴니 스토어'를 구현할 롯데마트 최초의 매장인 롯데마트 '스마트스토어 금천점'은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주상복합 건물의 지하 1층에 영업면적 9052㎡(약 2743평) 규모로 들어선다.

단순히 다른 콘셉트의 매장들을 결합시켜 놓고 '스마트스토어'라는 미사여구를 붙였던 것과는 달리, 기존 대형마트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차세대 스마트 기술을 고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매장으로 구성했다.

우선, 고객들이 '스마트스토어' 매장에 들어서며 'M쿠폰앱'을 스캔하면, 신상품과 행사상품의 정보와 설명, 관련 할인쿠폰들이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제공되며, 동시에 금천점 매장 내 해당 상품의 진열 위치도 알려준다.

왼쪽부터 3D홀로그램, 스마트청소로봇. /롯데쇼핑

매장 내 모든 진열 상품에 대해 종이 가격표 대신 QR코드가 표시된 '전자가격표시기(ESL/(Electronic Shelf Label)'를 설치해 고객들이 쇼핑 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상품의 특성이나 상세설명, 고객들의 상품평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들은 매대 앞에서 즉시 결제도 가능하며, 해당 상품은 3시간 이내에 받을 수 있다.

특히 매장 17곳(25개)에 설치된 최첨단 '3D 홀로그램'은 고객의 쇼핑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기존 카테고리별 상품 위치와 행사 정보 등을 시각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던 LED 모니터를 대신하는 '3D홀로그램'은 360도 모든 각도에서 고객들이 볼 수 있으며, 중앙 통제 프로그램을 통해 2~3개의 획일화된 영상이 아닌 다양한 영상과 음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롯데마트와 P&G가 합작해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 나올 법한 쇼핑 환경을 구현한 '무인 추천 매대'는 실시간으로 고객과 소통해 최적의 상품을 추천해 주는 1대1 대화형 상품 추천 시스템이다.

QR 스캔 쇼핑. /롯데쇼핑

매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도 대거 적용했다.

'전자가격표시기'를 비롯해 무빙워크, 엘리베이터 등 고객 이동 동선과 계산대 상단, 도와드리겠습니다(고객만족센터)에서 사용되던 포스터와 현수막 대신 선명한 화질의 디지털 사이니지(디지털 게시판)를 운영한다.

별도 성애 제거 작업이 필요 없는 '지능형 쇼케이스'를 설치해 상품의 신선도 관리 효율을 높였으며, 영업 시간 종료 후 자동으로 청소하는 '인공지능 청소 로봇'과 무인계산대(SCO/Self-Checkout Operation) 12대를 배치해 매장 운영 효율을 강화했다.

그로서란트 매장과 '룸바이홈(Room XHome)', '잇스트리트(It.street)', '보나핏(Bonafit)', '토이박스(Toybox)' 등 롯데마트 대표 특화매장을 한 곳에서 만나 볼 수 있는 '다크 스토어 존(Dark Store Zone/온라인 판매 상위 상품을 모음 진열해 QR코드 만으로 쇼핑이 가능하도록 구현한 옴니 스토어 공간)'도 마련했다.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는 "차세대 스마트 기술에 선진화 된 배송 시스템을 접목해 '옴니 쇼핑 환경'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4세대 미래형 쇼핑공간을 구현했다"라며, "최첨단 기술과 차별화된 볼거리, 엄선된 품질의 상품을 통해 고객들에게 오프라인 매장에서 느낄 수 있는 쇼핑의 재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비비고 국물요리' 누적 매출 2000억 돌파

CJ제일제당

비비고 육개장, 매월 30억 매출 기록

CJ제일제당의 '비비고 국물요리'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16년 6월에 첫 선을 보인 '비비고 국물요리'가 출시 30개월 만에 누적매출 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출시 첫 해 '비비고 국물요리'는 매출 130억원을 달성했다. 이어 지난해는 6배 이상 성장한 8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국민 가정식'으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한층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1000억 이상의 매출성과를 거뒀다. 누적판매 개수도 1억개에 달할 정도다.

지난 7월 이후부터는 월 평균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대형 히트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비비고 국물요리'의 간판 제품인 '비비고 육개장'의 경우 매월 30억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체 성장을 이끌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매출성과를 기반으로 국/탕/찌개 시장(완조리

제품 기준)에서 40% 수준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제품 라인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9월에 '비비고 갈비탕'과 '비비고 차돌된장찌개'를 출시했으며, 최근에는 신제품 '비비고 돼지고기김치찌개'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8시간을 우려낸 사골육수에 고기육수를 더해 깊고 진한 국물로 구현했다.

'비비고돼지고기김치찌개'는 오랫동안 보관하면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상온 제품으로 출시됐다. CJ제일제당은 고온살균(레토르트) 후에도 재료 본연의 맛과 식감을 살릴 수 있는 독보적 '한식 HMR 상온 기술'을 적용해 만들었다. 기존 제품 대비 풍성하게 돼지고기를 담아 추가 재료 없이도 든든한 한끼 식사를 즐길 수 있어 큰 인기가 예상된다. 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 '비비고 국물요리' 제품은 총 15종으로 확대됐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국물요리'의 흥행 비결로 정성스러운 가정식의 맛 품질을 구현한 점을 꼽고 있다. 모든 제품이 한식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식품연구소, 마케팅, 공장 등 식품 제조 전문가부터 한식요리사까지 모두 까다로운 맛 검증 절차에 참여해 만든 결과다. 오랫동안 보관하면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편의성을 고려해 상온 제품으로 개발한 점도 주효했다.

지난해 국·탕·찌개 시장은 1300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성장했고, 올해는 2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임동혁 CJ제일제당 상온HMR2팀장은 "독보적 R&D역량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맛 품질과 간편성, 다양한 메뉴 등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롯데백화점 "미키마우스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롯데백화점은 내년 1월 6일까지 롯데백화점 잠실점 에비뉴엘 6층 '에비뉴엘 아트홀'에서 '미키 인 서울' 전시회를 진행한다. 국내 최초로 롯데백화점이 디즈니의 대표적인 캐릭터 '미키 마우스'의 탄생 90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이번 전시장에서는 9명의 아티스트가 '미키 마우스'를 재해석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CU "주머니 속 동전, 스마트폰에 넣으세요"

'포켓CU' 앱 잔돈 적립 기능 추가

이제 편의점에서 생기는 거스름돈을 스마트폰으로 적립할 수 있다.

편의점 CU는 최근 새롭게 선보인 멤버십 애플리케이션(앱) '포켓CU'에 잔돈 적립이 가능한 바코드 형태의 선불카드 기능을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CU에서 '포켓CU'에 탑재된 바코드를 꺼내면 현금 계산 후 남은 동전을 선불카드에 적립할 수 있다. 별도의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된다.

CU는 잔돈 적립·사용 기능을 통해 동전 휴대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편을 완화하고, 동전의 유통·관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동전에는 구리, 니켈, 아연, 알루미늄 등 고가의 원재료가 들어가는데 10원 동전의 경우 개당 제작 비용이 약 30~40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포켓CU'의 선불카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CU에서 현금을 직접 내고 POS(결제단말기)를 통해 충전하거나, 계좌이체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이체하면 된다. 1회 5만원, 최대 5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BGF리테일 생활서비스팀 신율재 MD는 "포켓CU'의 잔돈 적립 기능을 통해 고객 편의 증대 및 가맹점 운영 효율성 증대, 사회적 비용 감소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편의점에서 아직까지 동전 사용이 많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만큼 해당 서비스가 실질적인 쇼핑 편의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하이트진로, 아트토이 '참이슬 더니' 출시

주류기업 최초 브랜드 아트토이

하이트진로가 국내 주류기업 최초로 브랜드 아트토이를 출시한다.

하이트진로는 미국 아트토이 브랜드 키드로봇과 함께 더니 시리즈를 활용한 '참이슬 더니'를 제작, 국내 한정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참이슬 브랜딩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아트토이 제작도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다양한 세대와 다채로운 방식으로 공감하며 브랜드 선호도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 외에도 현대백화점과 의류브랜드 컬래버레이션, 아웃도어 업체 헬리녹스와의 협업 등 참이슬만의 독보적인 브랜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업계와 협력하며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아트토이는 기존의 장난감에 아티스트나 디자이너의 그림을 입히거나 디자인 일부를 변형한 장난감으로, 국내 시장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며 해마다 20~30% 성장하고 있다.

이번 '참이슬 더니' 작업에는 세계적인 아트토이 아티스트 스캣원이 참여해, 더니 시리즈 모형에 참이슬 브랜드를 새롭게 디자인해 완성했다. 참이슬 더니는 세계적으로 1000개만 제작해 국내에는 오는 13일부터 100개 한정 판매한다. 전국 킨키로봇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며, 가격은 9만8000원이다.

/박인웅 기자

당 줄이고 당당하게 건강하자!

'당 저감운동' 외식업계 확산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 변경
50% 이상 저당메뉴 개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덜 달게, 더 건강하게'라는 슬로건이 프랜차이즈 외식업계에 확산되고 있다. 바로 식품의약안전처의 당 저감 운동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1962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4.8g이었다. 2013년에는 72.1g으로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가공식품으로부터의 당 섭취다. 12-18세 청소년의 일 평균 당류 섭취량은 2014년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과 비교해도 약 1.17배 높다.

식약처 조사결과 가공식품으로부터 당류 섭취량이 하루 열량의 10% 이상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39%, 고혈압은 66%, 당뇨병은 41%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비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6조80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적정 수준으로 당류 섭취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청년층(3~29세)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지난 2013년에 이미 섭취기준(10% 이내)을 초과했다. 어린이·청소년 약 2명 중 1명(46.3%)은 당류를 과다 섭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열량)의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2016~2020)'을 발표했다. 하지만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확산되지 못하다가 최근 커피를 비롯해 피자, 패스트푸드전문점 등이 잇따라 당 저감 운동에 참여하면서 당 저감 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다.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는 시그니처 메뉴인 햄버거와 탄산음료(에이드)에서 제조방법의 변경을 통한 당 줄이기에 나섰다. 그 중의 하나가 탄산음료를 대신할 탄산수다. 무당음료의 생수나 탄산수로 변경시 콜라의 평균 당 함량 32g의 절감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맘스터치는 소비자에게 탄산수 추천과 정보제공 등에 대한 고객응대 매뉴얼을 개발 중이다.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마루도 콜라, 사이다 등의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로 음료를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단 맛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당 저감화에 대한 메뉴와 영양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카페 프랜차이즈 커피베이도 소비자 대상으로 단 맛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첨가당 메뉴를 중심으로 당 함량을 줄인 메뉴 개발에 들어갔다. 커피베이 관계자는 "고객 중 75% 이상이 기존의 당도를 선택하는 등 익숙한 맛에 대해 변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고객에게 저당화를 친숙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커피베이는 기존 첨가당 대비 최대 50% 이상 당 함량을 감소한 저당 메뉴 개발에 이어 메뉴판이나 POP 등의 노출을 통해 저당 메뉴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장은 "'덜 달게, 더 건강하게'라는 슬로건으로 행동변화를 실천하는데 더 많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이마트 노브랜드, 우수 중소기업 판로 확보 나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력
주방·이미용 등 53개 상품 대상

이마트 노브랜드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손 잡고 우수 중소기업 상품 발굴 및 판로 확보에 나선다.

노브랜드는 12일 선릉역 '더모임'에서 국내 우수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품평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는 중진공 관계자, 노브랜드 바이어 10명이다.

대상 기업은 총 42개사(53개 상품)로, 노브랜드와 중진공은 앞선 11월 250여개 중소기업으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았다.

이번 품평회는 노브랜드 핵심 가치인 '스마트한 소비'에 적합하고 라이프스타일에 밀접한 신규 상품들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다.

상품 개발과 관련된 컨설팅과 동시에 우수 상품에 대해 상품 개발 가능성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성장플랫폼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10명의 노브랜드 바이어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은 각 중소기업 대표자와 1:1 형식으로 품평회와 컨설팅을 진행한다.

창의성, 기능성, 가격경쟁력 등에 대한 다면평가를 통해 추후 테스트 판매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바이어가 직접 나서 중소기업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HACCP 인증 등 상품 제조·유통을 위해 필요한 제반 조건과 상품 구성, 패키징 등 유통망 확대를 위해 검토해야 할 세부사항에 대해 컨설팅한다.

이번 품평회는 주방/생활, 이미용/헤어, 패션의류, 화장품/향수, 식품 총5개 분류 53개 상품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주방/생활 27개, 이미용/헤어 4개, 패션의류 4개, 화장품/향수 3개, 식품 15개 상품이다.

특히 53개 상품 중 70%인 38개 상품이 비식품으로,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에 맞는 '아이디어 상품'들이 품평회 리스트에 대거 오른 것이 특징이다.

이번 품평회를 통해 노브랜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스타상품인 '체다치즈볼', '물티슈'를 탄생시킨 '산들촌', '한울생약' 등과 같은 핵심 파트너 발굴에 적극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동아ST-유진벨, 北 항결핵제 후원 맞손

동아ST, 유진벨 재단 항결핵제 후원 협약식에서 엄대식 동아에스티 회장(오른쪽)과 스티븐 린튼(한국명 인세반) 유진벨 재단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11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유진벨 재단 사무실에서 대북 의료지원 단체 '유진벨 재단'과 북한 항결핵제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엄대식 동아에스티 회장, 스티븐 린튼(한국명 인세반) 유진벨 재단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 협약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북한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의 치료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동아에스티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북한 다제내성결핵 환자 치료를 위한 항결핵제 '크로세린'을 유진벨재단에 지원하고, 유진벨 재단은 이를 북한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유진벨 재단은 북한에서 결핵 퇴치 활동을 펼쳐온 대북 의료지원 단체이다. 1995년 북한 주민 식량 지원을 시작으로 1997년 결핵퇴치로 사업을 전환, 2008년부터는 다제내성결핵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아쿠아플라넷 63 "황금돼지 기운 받으세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스퀘어 아쿠아플라넷63에서 산타와 인어 복장을 한 모델들이 크리스마스 맞이 황금돼지 기운 전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CJ ENM 오쇼핑

中企 협력사에 베트남 우수제조사 연결

CJ ENM 오쇼핑부문이 중소 협력사의 해외 생산을 지원하는 상생 행사를 개최했다.

CJ ENM 오쇼핑부문은 지난 10일부터 1박 2일간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패션 협력사를 대상으로 베트남 현지 의류 제조사들과의 미팅을 주선하는 '우수 제조사 매칭 페어'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 제조사 매칭 페어'는 작년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행사다. 베트남은 낮은 인건비로 생산비용 절감이 가능하는 등 중국에 이어 '제조업의 메카'로 떠오르는 곳이다. 올해에는 CJ ENM 오쇼핑부문의 패션 협력사인 예성, 대광물산, 한스갤러리, 에스앤제이코 등 총 7곳에서 참여해 현지 제조사 공장 시설 등을 둘러본 후 본격적 업무 협의를 위한 미팅을 가졌다.

패션제품은 특성 상 매번 제조해야 할 디자인과 소재가 달라 중소기업들은 매 시즌마다 생산원가와 품질, 제조 일정을 모두 만족시키는 제조사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사의 문제로 인한 생산 불량이나 납기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판매 기회를 놓치게 돼 막대한 기회비용을 부담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특히 협력사를 대상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에 나선 것.

CJ ENM 오쇼핑부문은 베트남 현지에 있는 2000여 곳의 제조사 중 생산 능력과 신뢰도를 검토해 제조사 11곳을 선정해 참여 협력사와 현지 제조사와의 미팅을 주선했다. 또한 현지에서 제조사의 설비 및 환경을 확인 할 있도록 제조사 투어도 직접 시행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CJ ENM 오쇼핑부문이 분류한 현지 우수 제조사를 이용하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수백 만원이 소요되는 품질검사 비용에 대해서도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트남 현지 제조사 투어를 진행 중인 모습 /CJ ENM 오쇼핑

CJ ENM 오쇼핑부문 품질센터 손용현부장은 "현지 생산관리는 물론 언어, 수출입 등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많아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이번 행사가 협력사들이 해외 제조사를 찾기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SK-사노피

차세대 폐렴구균백신 美 임상1상 개시

국내 기술력의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이 미국에서 임상을 시작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노피 파스퇴르(사장 데이비드 로외)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폐렴구균백신이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의 임상시험계획 승인(IND)을 통과하고 이달 초 임상 1상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모기업인 SK케미칼은 지난 2014년 글로벌 백신 전문 기업인 사노피 파스퇴르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의 공동 개발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기존 계약에 따라 사노피 파스퇴르는 향후 허가, 마케팅을 포함한 전반의 폐렴구균백신 개발 과정을 SK바이오사이언스와 협력하게 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데이터모니터 헬스케어에 따르면 폐렴구균 백신 시장은 2016년 미국, 일본 및 5개 주요 EU국가에서만 약 5조200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 시장은 2025년까지 약 7조1000억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등 국내에서 개발 가능한 대부분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공장 안동 L하우스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대표는 "차세대 혁신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프리미엄 백신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백신 기술을 통해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7월 SK케미칼에서 분사해 신설된 백신 전문기업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LG, 연말 맞아 이웃사랑 성금 120억원 기탁

12일 이방수 ㈜LG CSR팀 부사장(왼쪽)이 서울 중구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에게 이웃사랑 성금 120억 원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화문광장 '사랑의온도탑' 3도 상승

LG가 120억원을 이웃에 나눈다.

LG는 12일 서울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20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작년과 같은 규모다.

성금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기초생계 지원, 주거 및 의료환경 개선, 청소년 교육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날 LG가 성금을 기탁하면서 서울 광화문광장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3도 가량 상승했다.

사랑의 온도탑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부액 현황을 알려주기 위해 만든 장치다.

연말 모금 목표액인 4105억원을 100도로, 41억500만원을 모금할 때마다 1도씩 오른다.

그 밖에도 LG그룹은 연말을 맞아 계열사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근 복지시설과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거나, 김치를 담가 선물하는 등이다.

LG 이방수 부사장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작은 정성이지만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LG가 가진 역량을 활용한 공익사업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롯데 '마음온도 37도 캠페인' 구세군에 5억 기부

롯데가 한국구세군과 함께 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마음온도 37도 캠페인'에 나선다.

롯데는 12일 서을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야외광장에서 한국구세군에 5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마음온도 37도 캠페인'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등 국내 어린이복지시설 450여 곳과 어린이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 230여 곳의 난방비 및 난방시설 개보수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롯데지주 황각규 부회장, 롯데장학재단 허성관 이사장, 한국구세군 김필수 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마음온도 37도 캠페인'은 롯데와 한국구세군이 2016년 겨울부터 진행하고 있는 연말 사회공헌캠페인으로, 사람의 체온 36.5도에 따뜻한 마음을 더해 기부자와 수혜 아동 모두 마음온도가 37도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롯데는 매년 기부금 규모를 늘려 올해는 5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롯데는 기부금 전달 외에도 일반 고객들이 손쉽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12월 한달 동안 롯데월드타워,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 설치된 캠페인 부스와 롯데사회공헌 홈페이지 등 롯데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계획이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은 "지난 주말부터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여 주변의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의 온기를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12일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서 롯데장학재단 허성관 이사장(왼쪽부터) 한국구세군 김필수 사령관, 롯데지주 황각규 부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지주

/박인웅 기자 parkiu7854@

"알뜰폰 10년은 갈까요?"

기자 수첩

김 나 인 〈산업부〉

"그래도 10년은 가야죠."

최근 만난 알뜰폰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롱텀에볼루션(LTE)에 비해 최소 20배, 최대 1000배 빠르고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 '꿈의 속도'로 불리는 5G 시대. 이동통신사들이 5G 상용화 경쟁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혼자만 갈 길을 잃은 알뜰폰의 생존 고심이 깊다.

당장 이동통신사가 저가 요금제를 내자 알뜰폰 이탈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이면 알뜰폰보다는 서비스가 많은 이동통신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는 지난 7월부터 5개월 연속 이동통신 3사로 가입자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아이폰XS' 등 신제품 출시 효과로 번호이동 시장 규모가 커져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은 늘어났지만 알뜰폰은 감소치를 보였다.

전망도 어둡다. 5G가 상용화되면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제공할 의무도 없다. 망 임대를 받아도 5G 망 도매대가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사는 5G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고 있는데 알뜰폰 업계는 당장 생존도 어렵다. 대기업 계열의 회사가 아니면 사업 규모도 작아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지라도 쇄신해보려고 새 이름을 찾으려고 공모전을 열었지만 실질적으로 알뜰폰 이름이 바뀔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참신한 아이디어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이용자가 바뀐 이름에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 때문이다. 알뜰폰에 대해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고, 이미 시장에 스며들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알뜰폰'이란 이름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있다.

결국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실과 5G 시대 틈새시장을 찾는 것이다. 알뜰폰에 대해 이용자들이 '싸구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이름 때문이 아니라 정체된 서비스 탓이 크다. 알뜰폰을 단지 저렴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재미있는 서비스가 있어 고객이 저절로 찾도록 틈새시장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도 그저 '퍼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5G 시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안을 고심해야 할 때다.

/silkni@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13일 (음 11월 7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 아니겠는가. 60년생 고기는 씹어야 맛이고 말은 해야 맛이라는데. 72년생 삶의 질은 나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84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되는 것.

소 49년생 말은 하기 쉬우나 주워 담을 수 없다. 61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73년생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자. 85년생 내가 믿어야 상대도 설득시킬 수 있음을 명심.

호랑이 50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62년생 자식이 아무리 예뻐도 가르칠 건 가르쳐라. 74년생 결혼은 둘이 했지만,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여행. 86년생 비상금을 활용하여 위기를 탈출.

토끼 51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가 있을 수 있다. 63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는 걸 명심. 75년생 1%만 존중해줘도 99%의 마음을 얻는다. 87년생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니 오늘은 행복.

용 52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 난감. 64년생 낙숫물에 바위가 뚫리니 꾸준한 노력을 하자. 76년생 불행을 입 밖으로 내뱉지 마라. 88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른 법이다.

뱀 53년생 상대의 실수가 내게는 기회로 다가온다. 65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건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 77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다. 89년생 두드리면 열릴 문이니 최선을 다해 두드려라.

말 54년생 모래 위에 쓴 약속은 바람 불면 지워져 버린다. 66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니 겸손하라. 78년생 확실한 거절이 상대에게도 좋은 일. 90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아야 한다.

양 55년생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67년생 새로운 인맥으로 유리한 정보를 얻게 된다. 79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생겨도 나에게 유리. 91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겠다.

원숭이 56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배우자와의 대화도 조심. 68년생 용띠, 소띠와의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 80년생 고집을 세우면 부모도 외면하니 적당히. 92년생 직장에서 기다리던 소식이 오니 근심도 같이 온다.

닭 57년생 버틸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 69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81년생 지인을 잘 관리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93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함부로 서명하지 마라.

개 58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일희일비하지 마라. 70년생 힘든 일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결해 보자. 82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 94년생 과대포장은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위.

돼지 59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중할 때. 71년생 운이 상승하고 있으니 용기를 내어 일을 추진. 83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95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남들도 알아주는 기회가 온다.

김상회의 四季

공자 말씀 친친이친

공자가 한 말 중에 친친이친(親親而親)이라는 말이 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욱 잘하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잘못 발전하면 지연 학연 등으로 연결되어 병폐를 낳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친친이친은 세간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사람관리를 하라는 것이 아닌 인지상정의 견지에서 잘하라는 것이다. 또한 논어의 자로편(子路篇)에 보면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라는 말도 보인다. 공자가 초나라의 섭공(葉公)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받자 단언하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다. 이 말이 바로 '근자열 원자래'인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이 말이 사실은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다. 가까운 사람이니 당연히 잘한다 생각할 수 있지마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말해주듯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근거리의 사람들에게 경쟁심을 느끼고 질투심도 더한 것이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들여다보면 가까울수록 더욱 원하는 것이 많고 뒷말들도 많이 한다.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상대적으로 원망 쌓일 개연성이 덜한 것이다. 공자의 친친이친이라는 말과 근자열 원자래는 그 의미가 바로 상통하듯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치민(治民)이나 보통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주라는 의미는 상대방을 진정으로 배려하고 존중해준다는 의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직원들을 고용한 오너의 입장에서도 단지 내가 너에게 돈을 주니 무조건 시키는 대로 일만 잘해! 라는 고압적 의미가 아닌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배려와 존중이 밑바탕에 깔린 후의를 말하는 것이리라. 진정 사람들 그 관계를 아름답고 고마운 인연으로 성의가 있다면 자연스레 주변에 사람이 따르고 모이게 되는 것이리라. 물질을 잘 베푼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며 가까운 사이라 해서 편한 관계라 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 또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1			
		5				2		
		1		3		8		
			6		7			
2				8				4
	1			4			3	
		3		2		6		
9	4		3		6		7	2
		2	1		4	3		

1	9						7	2
			2		6			
		4		5		3		
		3				8		
				1				
6		7				1		3
		1		6		2		
			3		4			
	2	5				6	8	

스도쿠 정답

5	8	3	4	9	1	2	7	6
2	7	1	6	5	3	4	8	9
9	4	6	8	2	7	3	5	1
6	3	5	2	4	9	7	1	8
4	1	7	3	8	5	9	6	2
8	2	9	7	1	6	4	3	5
7	9	8	5	3	2	1	6	4
1	6	2	9	7	4	5	8	3
3	5	4	1	6	8	9	2	7

4	8	6	1	9	7	5	2	3
5	1	7	4	2	3	6	9	8
9	3	2	5	8	6	1	4	7
7	4	1	2	3	9	8	5	6
3	5	9	8	6	1	4	7	2
6	2	8	7	4	5	9	1	3
8	9	3	6	1	4	2	5	7
2	7	5	9	1	8	3	6	4
1	6	4	3	7	2	5	8	9

문제 제공= 보누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10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204호

낙하산 인사… 철도 사고…수장 공백…'위기의 코레일'

오영식 사퇴 '무책임·회피' 비판
사고 녹취록 공개… 여론 들끓어
차기 CEO 선임 장기화 전망

코레일 오영식 사장이 11일 오후 대전 동구 코레일 본사 앞에서 취재진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강릉선 KTX 열차 탈선사고 현황보고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오영식 코레일 사장자리에 명패가 놓여 있다. 오 사장은 오전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정인수 부사장이 현황보고를 했다. /연합뉴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경영 선로'가 사면초가 상태다. 잇따른 철도 사고로 국민적 신뢰도가 저하된 가운데 오영식 사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경영 공백마저 생겼다. 비효율적인 시스템, 낙하산 인사 등의 병폐도 재조명되고 있다.

◆철도사고 빈번…CEO 사퇴가 답?

12일 업계에 따르면 철도 관련 크고 작은 사고가 한 달 새 10건이 넘어섰다. 이 중 대형사고는 지난 8일 오전 발생한 강릉선 고속철도(KTX) 탈선 사고다.

기관차를 포함해 10량 모두 철로를 벗어난 초유의 대형 사고다. 다행히 인명 피해 없이 부상자만 있었으나,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고였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강릉선 KTX 사고는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쇄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릉선 KTX 탈선 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자, 코레일 오영식 사장의 책임론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결국 오 사장은 지난 11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업계에선 오 사장의 사퇴가 오히려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원인규명을 하지 못한 애매한 시점에서 사장직을 내려놨기 때문이다. 특히 오 사장은 이날 국회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릉선 KTX 사고에 관한 질의를 받기로 한 상태였으나, 한 시간여를 앞두고 돌연 사퇴했다.

사퇴의 변도 책임 회피식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사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그동안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추진된 대규모 인력 감축과 과도한 경영합리화, 민영화와 상하분리 등 우리 철도가 처한 모든 문제가 그동안 방치된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전후 상황에 담긴 관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코레일을 향한 비판이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지난 8일 오전 7시35분 발생한 서울행 806호 KTX 산천열차의 탈선 사고 전후 상황이 담긴 녹취록에선 사고 28분 전 강릉역 인근 선로전환기가 고장 났다는 신호가 감지됐다. 그러나 경보시스템이 엉뚱한 곳을 지목했고, 관제사들은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도 열차를 출발시킨 정황이 파악됐다.

◆낙하산 인사 재조명…차기 수장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코레일의 낙하산 인사가 다시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코레일은 철도청에서 지난 2005년 1월 공기업 형태로 출범한 이후 8명의 사장을 거쳤는데 이 가운데 5명이 철도와 관련 없는 낙하산 사장이었다.

오 사장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3선 국회의원, 문재인 캠프 조직본부장 출신이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코레일과 자회사 5곳에 임명된 임원 37명 중 35%(13명)가 여당 등 출신이다. 그러나 역대 코레일 사장 중 임기를 채운 인물은 '제로(0)'다. 정치계로 나가기 위한 통과의례식으로 코레일을 거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번 오 사장 퇴진을 계기로 코레일의 낙하산 인사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차기 수장을 선임하기까지 긴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지난해 8월 홍순만 전 사장이 사퇴한 이후 오 사장이 취임하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해고자 복직, 철도승무원 부채 해결 및 자회사 채용 등 오 사장이 추진했던 노사유화정책과 SR과의 통합 등 이슈를 해결할 만한 적임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aT-농식품부가 꼽은 2019 외식 트렌드는
뉴트로 비대면 서비스 편도족 확산

소비자 3000명·전문가 의견 기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외식 트랜드를 설명할 키워드로 '뉴트로 감성', '비대면 서비스화', '편도족의 확산'을 선정했다.

aT는 13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2019 외식소비 트랜드 발표대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2019 외식 트랜드 키워드는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18년의 외식소비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전문가 20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율해 도출됐다.

우선, 뉴트로 감성은 익숙하지 않은 옛것(아날로그 감성)들이 젊은 세대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것으로 느껴져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뉴트로는 음식에 제한되지 않고 간판, 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외식분야에서는 골목상권에 대한 관심증가가 이러한 현상을 대표한다.

비대면 서비스화는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대형 마트 등에서 사용되는 무인주문 및 결제시스템의 확산을 의미한다. 무인화·자동화의 확산에 따른 배달앱, 키오스크, 전자결제 등의 발달로 외식 서비스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식업계에서는 사람중심의 고급화된 서비스와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로 양극화 질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편도족의 확산은 식사의 해결 방식이 다양해지고, 편의점에서 즉석간편(HMR)제품을 사먹는 것도 소비자들이 외식으로 인식하는 현상이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편도족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을 말하나, 2019 외식 트렌드에서 나타나는 편도족의 확산은 단순히 HMR의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편의점이 서비스 및 음식섭취의 공간으로 식당을 대체하게 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을 의미한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우체국 상시집배·택배원 2252명 공무원 전환

내년 우본 예산 인건비 300억원 증액
2016년 5.8배… 역대 최대규모 전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252명의 상시집배·택배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12일 국회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상시집배·택배원 국가공무원 전환 예산과 우정실무원·특수지계약집배원 명절보로금 인상액이 포함된 정부 예산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통과로 우정실무원 전일제와 특수지계약집배원은 명절보조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우정실무원 시간제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우본 인건비가 300억원 증액되면서 상시집배·택배원 2252명이 내년에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이는 한해 공무원 전환 인원 중 역대 최대 규모로, 2016년 386명의 5.8배에 달한다.

올해 공무원으로 전환된 집배원 1062명을 포함하면 2년간 3314명을 전환하는 셈이다. 이는 작년까지 2년간 공무원 전환 인원 1126명의 3배 수준이다.

우본은 당초 내년부터 4년에 걸쳐 2000여명을 공무원으로 전환할 방침이었지만 국회에서 4년치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모두 반영하자 1년 만에 상시집배·택배원 전원의 공무원 전환을 마치기로 했다.

집배원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본 노사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은 지난 10월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이 작년 2745시간으로 한국 임금노동자 평균(2016년 2052시간)보다 693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16년 1763시간)보다 982시간 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추진단이 제안한 내년 집배원 정규직 1천명 증원을 위한 예산은 국회에서 삭감당했다.

추진단은 주 52시간 이하 근무를 위해 집배원 정규직을 2천명 늘려야 한다며 내년에 1000명을 증원하고, 이후 추가 재정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했었다.

이에 따라 전국우정노조는 지난 10일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과 긴급 회동을 갖고 상시집배·위탁택배원의 즉각적인 증원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가스안전公-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 일자리창출 등 상생협력 맞손

가스안전公, 협력기금 1억 출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농어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은 12일 가스안전공사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향후 공사 이전지역인 충북지역 및 전국 지역본부·지사 관할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는 향후 3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기금은 농어촌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복지증진 사업, 농어업인 자녀 교육·장학사업, 정주여건 및 경관 개선사업, 농수산물 판매 등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협력기금 출연·지원은 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출연이 필요한 시점에 해당 사업의 계획서를 협력재단에 제출하고, 협력재단에선 FTA농어업법에 의한 사용목적의 적합성을 검토, 지원대상에게 상생협력기금을 수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김승호 기자

신보
혁신스타트업 투자유치 '통합데모데이'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2018 신보 Start-up(스타트업) 통합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혁신 스타트업에게 민간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데모데이에는 신보가 발굴한 퍼스트펭귄 기업, 4.0스타트업 기업 등 혁신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투자유치를 위한 IR(기업 투자설명회) 피칭대회, 홍보부스 운영, 참가기업과 벤처캐피탈간 네트워킹 등의 행사도 진행됐다.

신보는 이날 행사에 앞서 스타트업의 IR 기회 확대와 혁신창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역별 데모데이를 개최하고 이후 통합 데모데이에 참가한 기업들에게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IR 코칭을 제공했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개최된 '2018 신보 Start-up 통합 데모데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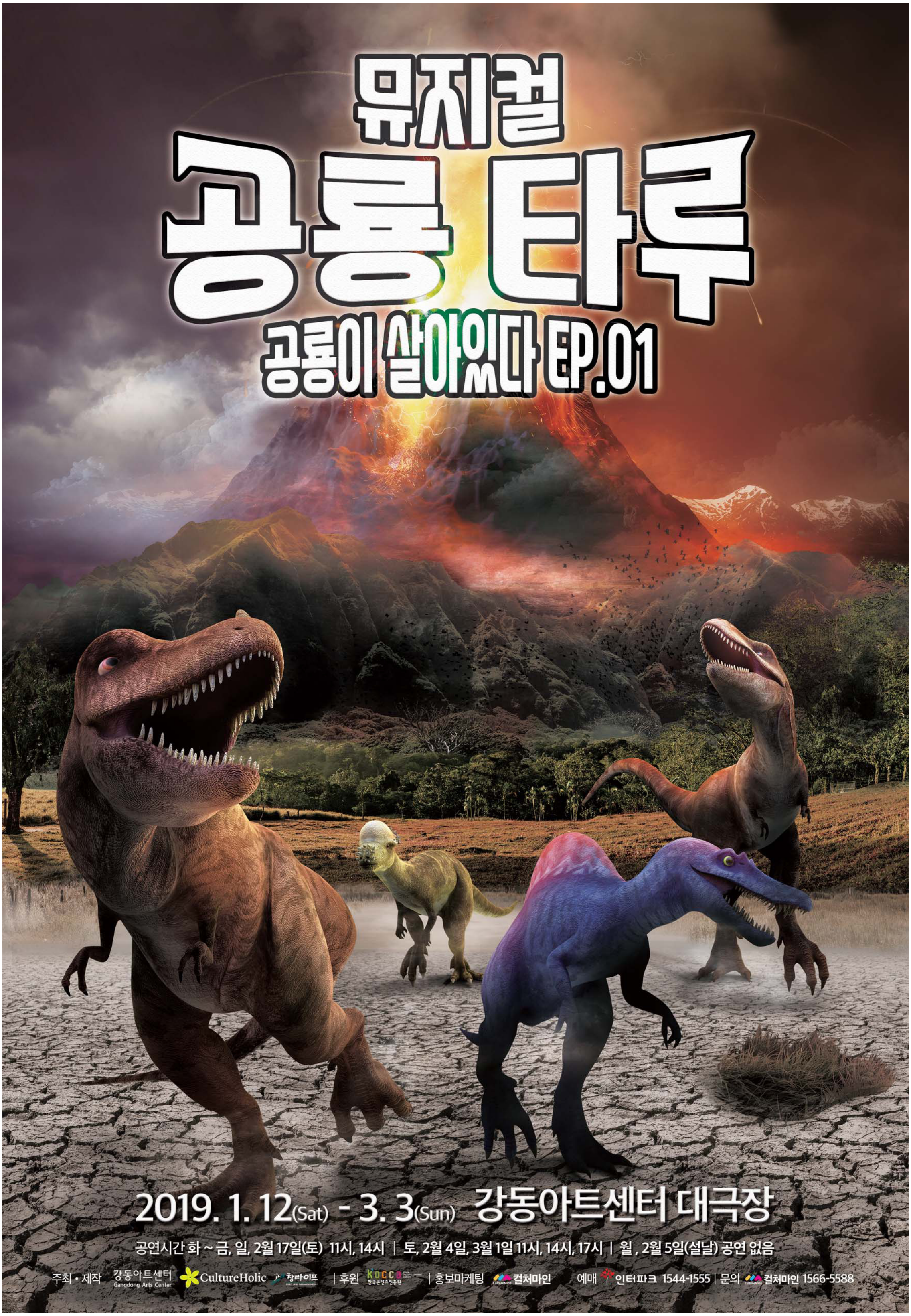
이날 통합 데모데이 행사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지능형 IoT, 첨단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12개사가 참여했다. 이들 스타트업은 엘비인베스트먼트, 센트럴투자파트너스, 등 30개 벤처캐피탈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단과 스타트업 관계자로 구성된 일반청중 평가단을 대상으로 IR 피칭을 진행했다. /김희주 기자 hj89@

농진청
'건조배추' 시장 개척
배추산업 활성화 추진

정부가 최근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배추산업을 위해 간편식 재료로 활용가치가 높은 '건조배추' 생산 활성화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즉석 김치 등 건조배추를 간편식 재료로 활용하면 향후 20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일 농진청에 따르면 건조배추는 40℃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배추 전체를 말린 것으로, 소금에 절일 필요가 없는 건강한 간편 식품 소재로 영양 성분도 신선배추 수준으로 유지된다. /세종=최신웅 기자


뮤지컬
공룡 타루
공룡이 살아있다 EP.01
2019. 1. 12(Sat) - 3. 3(Sun)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공연시간 화~금, 일, 2월 17일(토) 11시, 14시 | 토, 2월 4일, 3월 1일 11시, 14시, 17시 | 월, 2월 5일(설날) 공연 없음
주최·제작 강동아트센터 Gangdong Arts Center CultureHolic 창라이프
| 후원 kocca 한국콘텐츠진흥원
| 홍보마케팅 CultureMine 컬처마인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 문의 CultureMine 컬처마인 1566-5588

35년 된 광주 하남산단… 첨단산업 단지로 탈바꿈

2026년까지 438억 재생사업 실시
청년 신규채용·고용 창출 효과 기대

하남산단 전경. /광주시

준공된 지 35년이 지난 광주 하남산단이 첨단산업단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존에 금속산업 위주의 공해유발 업종 대신 정보통신기술이나 지식산업 위주의 첨단산업으로 업종을 재배치하고 노후한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광주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남산단 재생시행계획(안)을 확정하고 오는 17일 하남산단관리공단 회의실, 오는 26일 전남 장성군 남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각각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 장덕·오덕·안청·도천동 일원에 1983년 준공된 하남산단은 현재 594만4000㎡의 부지에 산업시설 449만7000㎡, 지원시설 25만1000㎡, 공공시설 82만2000㎡, 녹지구역 37만3000㎡ 등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999개 업체가 입주해 가동률 99.7%를 보이며, 연간 생산액이 12조 2526억원으로 광주 산단 전체의 53.1%를 차지한다.

수출액도 41억2100만달러(광주시의 54.3%), 고용인구 2만6430명에 이르고 있다.

입주 업종은 조립금속 업종이 39.3%, 화학 업종이 13.2%, 식품 관련 업종이 4.6% 등의 순이다.

하지만 준공 35년이 지나면서 생산설비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2015년 7월 정부 공모에서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자 올해 1월부터 하남산단의 재생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재생시행계획(안)을 수립했다.

광주시는 국비 180억원, 시비 249억원, 민자 9억원 등 모두 438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까지 3단계로 나눠 하남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2016~2019년)에 300억원, 2단계(2020~2023년)에 100억원, 3단계(2024~2026년)에 38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를 통해 노후한 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하고 편리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구조 고도화 사업을 통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정보통신기술(ICT)·지식산업 등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도록 추진한다.

주로 의료정밀·과학기계, 시계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무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한다.

금속산업이나 사양산업, 공해유발 업종 등의 부지를 용도변경을 통해 첨단부품소재 등으로 재배치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도입하는 등 집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도로 구조도 대형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너비 17.3m로 개선하고 주차장 2개 신설, 공원과 산책로 신설 등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광주시는 업종 재배치와 지식산업센터 설치 등으로 미래성장 유망산업을 유치하면 청년 근로자 신규 채용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업종 재배치 등을 마무리하면 연간 생산액이 약 94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재생사업을 통해 하남산단은 산업·문화·연구 기능이 복합된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복합산업단지로 재정비하면 입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완도, '전복산업' 활성화 위한 워크숍

완도군은 전복 생산량 증가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한계 등으로 인해 전복 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종자·생산·유통·가공·수출 관계자 및 유관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분야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완도군의회,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완도지원, 남해수산연구소,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 수산종자연구소, 한국수산개발원 양식관측팀 및 유관 기관과 한국전복산업연합회 등 전복 산업 분야별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완도군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 박차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징곡
국비 9억원 사업비로 확보 성공

지난 7월 7일 체코 프라하 특별음악회의 모습.

5·18 광주민주화운동 상징곡이자 광주정신이 깃든 '님을 위한 행진곡'이 세계 민주주의 상징곡으로 거듭 난다.

광주광역시는 '님을 위한 행진곡'에 담긴 5월 민주정신을 문화예술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에 알리기 위해 추진해 온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비가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비 9억원이 반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년까지 총사업비 83억원(국·시비 각50%)을 5년 간 투입해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반으로 전 세계인이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작·보급, 글로벌 브랜드화하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국비 9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님을 위한 행진곡 창작 뮤지컬'을 제작하고 2020년 5·18민주화운동 제40주년을 기념해 국내외 순회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홍콩, 대만, 중국,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국가별로 제각각 불리고 있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표준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표준가사를 마련하고 행진곡의 가사와 배경, 과정 등을 세계어로 번역해 배포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아시아, 유럽 등 민중가요분야 활동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카데미, 워크숍 등 국제학술행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를 위해 2018년부터 관현악곡 제작, 국내외 연주회 개최, 창작 관현악곡 작품공모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더불어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비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여야당과의 정책간담회, 정부 부처 방문 설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에 담긴 5월 민주정신을 문화예술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콘텐츠들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병재 시 문화도시정책관은 "2022년까지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이 세계적인 브랜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제작·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민주·인권·평화도시라는 글로벌 브랜드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보해양조, 숙취해소음료 '간개무량' 출시

간 기능 도움되는 7가지 성분 담아

보해양조가 숙취해소음료 '간개무량'을 새롭게 출시한다. 연말 송년회 자리가 많은 이들에게 소주회사 보해가 만든 숙취해소음료의 등장은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해양조가 오는 13일 출시하는 간개무량은 술을 제일 잘 아는 소주회사가 만든 숙취해소 음료다. 지난 1950년 설립된 이후 68년 동안 주류전문기업으로 발전해온 보해는 술을 만드는 것은 물론 숙취해소에 관한 노하우도 풍부하다.

간개무량은 보해가 가진 숙취해소 노하우를 모두 담은 음료로서 알코올 분해 효과가 뛰어난 밀크씨슬과 울금 등 간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7가지 성분을 담았다. 밀크씨슬과 울금 이외에 헛개나무 열매, 비타민 B6, 효모엑기스, 오리나무, 미배아대두추출물 등 간에 좋은 성분이 최적의 조합으로 들어갔다. /광주=봉채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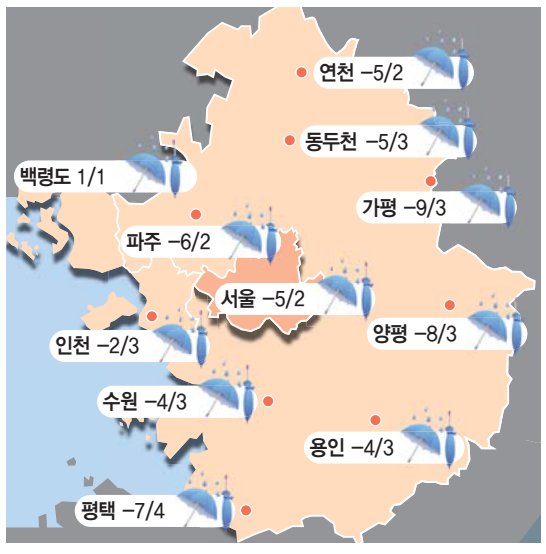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38 | 해짐 / 17:14

12월
13일(木)
음력 : 11월 7일

수도권 날씨
-5~2℃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전남도, 창업자에 전국 첫 1대1 전문가 매칭

전남 창업지원 종합 플랫폼
준비부터 창업 후 케어까지 맞춤형

'전남 창업지원 종합 플랫폼'이 전국 최초로 창업자를 대상으로 준비단계부터 창업 후까지 1대1 전문가 매칭 지원에 나선다.

전라남도는 12일 무안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예비창업자, 창업지원기관,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창업지원 종합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전라남도는 설명회에서 플랫폼 사업의 목적, 시스템, 운영 방향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4차 산업혁명의 스타트업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강연도 이어졌다.

창업 지원 종합 플랫폼에서는 전남지역 27개 창업지원기관을 하나로 연결해 다양한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상담을 통해 수요자에 맞는 창업 코디네이터를 1대1로 매칭해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한다.

누리집을 통해 다양한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플랫폼 운영은 다른 지역에서도 실행하고 있으나, 1대1 전문가 매칭을 통해 준비 단계부터 창업 후까지 계속 컨설팅을 하는 것은 전남이 최초다.

전라남도는 12월 시범 운영을 통해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 창업을 바라는 도민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2019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김신남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플랫폼 운영의 성공 여부는 창업 희망자의 길잡이가 될 전문가 멘토단의 활약에 달려 있다"며 "멘토단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살려 예비창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이 이뤄지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창업지원 종합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전남=봉채영 기자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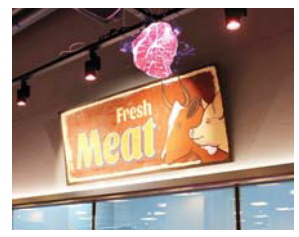
metro

제4100호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금융]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하루만에 1.5만좌
04

Life

[라이프]
롯데마트
미래형 쇼핑공간
'스마트스토어' 오픈
L1



"어디로 가라고…" 40년 터전서 쫓겨나는 공구상인들

르포
서울 청계천 세운상가 일대를 가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 청계상가 인근에서 공구상을 운영하는 이상순(65)씨가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 중구 세운상가 일대 산업용재 업체 셔터에 '단결투쟁', '재개발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써있다. /석대성 수습기자

"청계고가 철거, 청계천 복원공사에 적극 협조했는데 막상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재개발을 할테니 수십년 지켜왔던 생업의 터를 떠나라는 것이다."

지난 11일 아침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에서 공구상을 운영하는 이상순(65)씨가 가게 문을 열고 있다. 이씨 책상 뒤에는 '단결투쟁'이라고 적힌 빨간 조끼가 걸려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돈을 벌겠다'는 생각 하나로 1972년부터 청계천에 있는 공구상에서 점원으로 일을 시작했다는 이씨는 8년만인 1980년에 지금의 가게를 마련했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지켜온 자리도 올해가 마지막이다. 이씨는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로 가게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게 됐다"며 "서울시가 70년대 산업 역군들을 대책 없이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세운지구 일대 가게는 대부분 비어 있는 상태다. 일부 건물은 벌써 철거에 들어갔다. 셔터가 내려진 몇몇 가게엔 옮긴 곳의 위치를 알리는 약도나 '재개발 결사반대', '단결투쟁'을 써붙인 종이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1979년 세운상가 일대(종로구 종로3가동 175-4 일대 43만8585㎡)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오세훈 시장 시절인 지난 2006년 10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다 2013년 6월 박원순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목표는 세운지구를 ▲도심산업의 발전적 재편 ▲역사문화와 조화되는 도심관리 ▲점진적 정비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보전 등을 통해 '창조문화산업중심지'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후 서울시는 종로구·중구와 분야별 전문가 등을 특별팀으로 구성해 주민 면담을 거쳐 재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이곳에는 2023년까지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들어선다.

문제는 서울시가 주민·건물주와는 재개발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공구상가 등 상인들과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청계천 2~4가에만 1만개 가량에 달하는 점포에서 약 4만명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상인들은 인근에 대체 공구상가를 마련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안도 없이 엄동설한에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청계천 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다. 비대위는 4개로 나눠 구역별로 운영 중이다. 일부는 이달 초부터 충무로 효봉빌딩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그곳은 재개발 시행을 맡은 한호건설이 위치한 곳이다.

상인들과 소통 부족한 재개발
대안 없는 상인들 천막 농성
임대인 법적 보호받기 힘들어

37년간 공구상을 운영한 허모(65)씨는 "한호건설이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상인들을 협박까지 했다"고 귀띔했다. 실제, 지난 9월 한호건설은 합의하지 않은 상인 60여명을 상대로 1인당 3억원의 손배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허씨는 당시 소송 내용증명서류를 보여주며 "한호건설 소송에 대부분이 겁을 먹고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했고, 이후 (한호건설이) 소송을 취하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12일에도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효봉빌딩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문 등을 낭독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지난 5월에도 대규모 시위를 했다.

당시 비대위는 "서울시가 '도심 쇠퇴'라는 미명하에 생계를 말살하려 한다"며 "상인들을 위한 대책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현장을 찾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관계자는 "세입자 대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비대위가 박 시장에게 전하는 호소문을 받아가기도 했었다. 현재 행정2부시장실로 부서를 옮긴 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시장실 비서관에게 (호소문을) 전달했다"며 "대안을 모색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2부시장은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다만, 상인들을 내보내는 것에 법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갱신 요구 등을 명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 7호에 따르면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훼손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LNC 신유진 변호사는 "건물 노후로 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정받은 경우 임대계약은 갱신하지 못한다"며 "법적으로 따졌을 때 (상인들이)보호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석대성 수습기자 bada@metroseoul.co.kr

'서울기술연구원' 출범… 도시문제 해결한다

서울시, 지자체 최초 개원
R&D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서울에 지자체 최초의 기술연구원이 출범했다.

서울시는 12일 상암동 DMC 산합협력연구센터 1층에서 '서울기술연구원' 개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그간 고도 성장을 하며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왔으나 미래 변화에 대비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할 연구조직이 없었다.

시는 외부 개별 연구기관에 위탁·의존해 정책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원 설립을 추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민선6기 시작부터 "도로·교량 등 도시인프라 분야에 특화된 과학기술 관련 연구원이 필요하다"면서 "200~300명 수준의 기술분야 연구직이 일할 수 있는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연구원은 기획조정본부, 기술개발본부의 2개 본부로 구성됐다. 도시인프라, 안전방재, 생활환경, 혁신융합 분야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석·박사 연구진 등 32명이 근무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연구인력을 1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서울의 도시특성에 적합한 기술을 발굴,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이 건강한 도시 연구 ▲재난·재해에 안전한 도시 연구 ▲시민의 생활과 환경이 편안한 도시 연구 ▲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융합 도시 연구에 주력할 방침이다.

연구원은 내년까지 1단계로 서울시의 현안과제를 우선 추진하는 연구기반을 조성한다. 2단계(2020~2021년)로는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등 글로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연구역량을 키운다. 2022년부터는 IoT 기반 지능형 도시관리 체계를 만들고 민·관·학 연계 국내외 기술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

재고품으로 만드는 크리스마스 장식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7회 서울디자인페스티벌'에서 '래코드' 부스 관계자들이 재고 스웨터를 실로 풀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산업폐수 수질오염물질 검사 강화

검사 대상 오염물질 대폭 확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수질오염물질 검사 대상이 기존 49종에서 54종으로 확대되는 등 수질오염물질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고 12일 밝혔다.오는 2019년도부터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수질오염물질은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퍼클로레이트 등 5종이다.

이들 수질오염물질은 지난 2017년 1월 마련된 '폐수 배출 허용기준'에 명시됐으나,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9년 1월1일부터 검사 대상에 포함돼 '폐수배출 허용 기준치'를 넘을 경우, 사업장에는 '초과 부과금'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특별 관리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도 25종에서 32종으로 확대된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인 광주, 이천, 여주, 남양주, 가평, 양평 등 도내 7개 시·군(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내에 들어설 수 없다. 또, 기존 시설이라 하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출원 폐쇄나 공정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경기도, 학교급식 비리업체 무더기 적발

불법 제조·납품행위 34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220개 학교급식 납품실태를 단속한 결과 31개소에서 3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내 학교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관련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는 특사경에서 처음 실시했다.

유형별 위반행위를 보면 ▲허위표시 5건 ▲기준규격 위반 5건 ▲영업변경신고 위반 4건 ▲유통기한 경과 4건 ▲표시기준 위반 7건 ▲미신고영업 5건 ▲위생불량 등 기타 4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식육포장처리업 A업체는 학교에 납품되는 포장육 675kg을 위탁 생산하면서 제조원을 자사가 아닌 낙찰 받은 다른 업체명으로 허위표시하는가 하면, 냉동 보관해야 하는 돈육갈비를 냉장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A업체에게 위탁 생산을 의뢰한 낙찰업체 7개소는 시설만 갖추고 전혀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곳으로 특사경은 이들 업체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명의로 설립한 위장업체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도는 A업체를 포함하여 이들 8개 업체를 입찰방해 혐의로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B업체는 김치 제조공장으로 깍두기, 석박지 제조에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도 하지 않고 포장지에도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업체는 냉동오징어를 외부주차장 바닥에서 비위생적으로 해동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경기=김승열 기자

SAMSUNG

진정한 자연색을 위해
화질의 한계를 넘다

TV를 넘어 새로운 비전이 되다

Quantum QLED 8K

8K 초고화질 8K 해상도로 즐기는 진정한 자연색

현존하는 최고화질 UHD의 4배, 무려 3,300만 개의 픽셀로 마치 실제와 같이 깊이 있는 진정한 자연색을 구현합니다. 대화면에서도 변치 않는 8K 초고화질의 진정한 자연색이 전달하는 현실감을 느껴보세요

* 8K 스트리밍, 연결, 디코딩 표준 규격을 기반으로 한 영상만 지원

퀀텀 프로세서 8K[AI] 어떤 화질, 어떤 사운드도 8K로 자동 최적화

수 백만 개의 영상을 머신러닝으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해상도가 낮은 영상도 알아서 8K급 화질로 높여주고, 음악, 액션, 스포츠 등 영상에 맞춰 최적화된 사운드를 들려 줍니다 이제 QLED 8K TV로 다양한 콘텐츠를 8K급으로 즐겨 보세요

* 원본 영상이 HD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변환 결과는 상이할 수 있음

8K HDR 4000 빛과 어둠 속 숨은 장면까지 선명한 디테일

QLED 8K는 현존하는 TV의 두 배가 넘는 4000nit의 밝기로 가장 어두운 장면부터 가장 밝은 장면까지 선명한 디테일을 보여 줍니다. 이제 그 어떤 장면에서도 뭉개짐이나 흐릿함 없는 8K 초고화질을 경험해보세요

* 4000nit는 189cm 이상 모델에 한함

* 실 사용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